

리아호나

영의 풍요로움을 충만하게
얻음, 2쪽

17일간의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 여행, 8쪽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서
내면의 영적인 평안과 힘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절대적인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 참조, 2쪽

리아호나



표지

모델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스티브 번더슨, 브라이언 케이 켈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 2쪽 참조.



친구들 표지

모델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우리는 그분을 증거합니다", 2쪽 참조.



8쪽 참조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12 하나님의 사랑 *러셀 엠 넬슨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 26 예수님의 말씀: 용서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
- 30 은연중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
윌프레도 알 로페스 장로
- 36 복음 고전: 세 가지 비유-어리석은 벌, 야간 고속 열차, 그리고 두 개의 등잔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
- 42 말일성도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
아이렌 코임브라 드 올리베이라 클라우디오
의심하지 않아요 *쥬세페 마티넨고*
매우 특별한 성찬보 *후안 알도 레오네*
- 48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활용하기

청소년란

- 8 생일 성전 여행 *크리스틴 원밀 사무스위크*
- 18 모리스의 도움 *로리 리브시*
- 22 질의 응답: 제 친구들이 순결의 법을 알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33 포스터: 너를 얽어 매지 않도록 하라
- 34 잠을 깨우는 벨소리 *아이잭 코피 모리스*
- 47 알고 계십니까?

친구들란

- 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는 그분을 증거합니다
고든 비 항클리 대관장
- 4 함께 나누는 시간: 복음이 회복됨 *비키 에프 마쭈모리*
- 6 용서의 조약돌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 9 성전 카드
- 10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엄마를 도움
비니 켄 무라마쭈 드 올리베이라
- 11 신약전서 이야기: 첫번째 성찬; 최후의 만찬에서의 다른 가르침들
- 16 노래: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 *제니스 캡 페리*



18쪽 참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레그 올슨

플로리다 주 베니스에 있는 밀 폰드 프레스(MILL POND PRESS, INC.)의 VISIONS OF FAITH COLLECTION(신앙의 시현 모음) 중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여호수아 1:9)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제2호
23982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라셀 앤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앤 라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인더
고문: 제이 켄트 줄리, 더블류 볼프 카, 스티븐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너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비노

관리 편집인: 리차드 엠 롬니
관리 편집인 보조: 마빈 케이 가드너, 비비안 폴슨, 돈 엘 설
편집 스태프: 콜리트 네베커 오온, 수잔 브렛, 라이언 카, 린다 스탈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사나 가즈나비, 제니퍼 엘 그린우드, 리사 앤 잭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벳, 앨런 민슨, 샬리 제이 오데커트, 애덤 시 울슨, 주디스 엠 팔러, 조나단 에이치 스트리븐스,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와델, 캄벌리 웰, 모니카 워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엘 엠 가와시키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슨,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하워드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브렌트 크리스티슨, 새리 쿡, 캐리 린 시 해린,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마크 더블류 로버슨, 브래드 커어,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웨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텐슨

통 권: 제 443호, 제 40권, 제 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3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구로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경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도(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이티어, 할리케이노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일로카노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February 2003 No.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애독자 편지



팔마이라 성전 헌납

저는 아 리아호나(포르투갈어판)의 애독자입니다. 저는 특히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님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2001년 9월호 리아호나에서, "회복의 요람"이라는 제목으로 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족에 관한 짧은 역사를 읽었는데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뉴욕 팔마이라 성전 헌납 기도의 발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기도였지만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어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도록 영감을 준 분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저는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가족과 전임 선교사와 그것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메시아스 카시미로 발렌테,
브라질 나탈 스테이크
리오 브라코 와드

기쁨과 평화의 근원

리아호나(스페인어판)는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예언자와 사도들의 영감 받은 말씀을 통해 저는 가르침과 위안, 인도와 소망,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 메시지는 꼭 저를 위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은 제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며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마리아 카르멘 홀가도 모라탈,
스페인 알코이 지방부
알코이 지부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연차 대회 말씀이 실린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읽을 때마다, 저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저를 강화시켜 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는 2001년 7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심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의 "가장 중요한 것 먼저"라는 말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상적인 가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라는 스코트 장로의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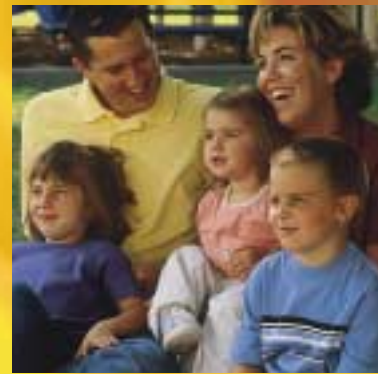
가족 가운데서 저만이 말일성도입니다. 스코트 장로의 "결코 그러한 목적을 단념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읽고, 저는 기회가 온다면 가족과함께 그것에 대해 간증을 나누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실비아 마리솔 에메리타 가르시아 보니토,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스테이크
로스플라네스 와드

나부 성전을 축하합니다.

일리노이 주 나부 성전의 재건축을 축하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의 회원은 아닙니다. 저는 Community of Christ(그리스도 공동체: 이전에는 복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불리었음)의 사제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구독해 오던 리아호나(독일어판)에서 성전 건립에 관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빌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하엘 쇼에프케,
독일 베를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에 베소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바랐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에베소서 3:16)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기본 프로그램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이 주는 안전함과 사랑 그리고 따뜻한 환영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신 구세주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 39)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모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들이 현대 예언자와 사도들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순종하여 내적인 도덕적 힘과 성품을 키우도록 노력합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는 독립적이고, 근면하고, 검소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다.】¹ 우리의 “장기 목표는 교회 회원들이 훌륭한 성품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 내부 깊은 곳에 내재된 가장 훌륭한 것을 이끌어 내는 것이며, 풍부하게 잠재된

영의 결실을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이요, 목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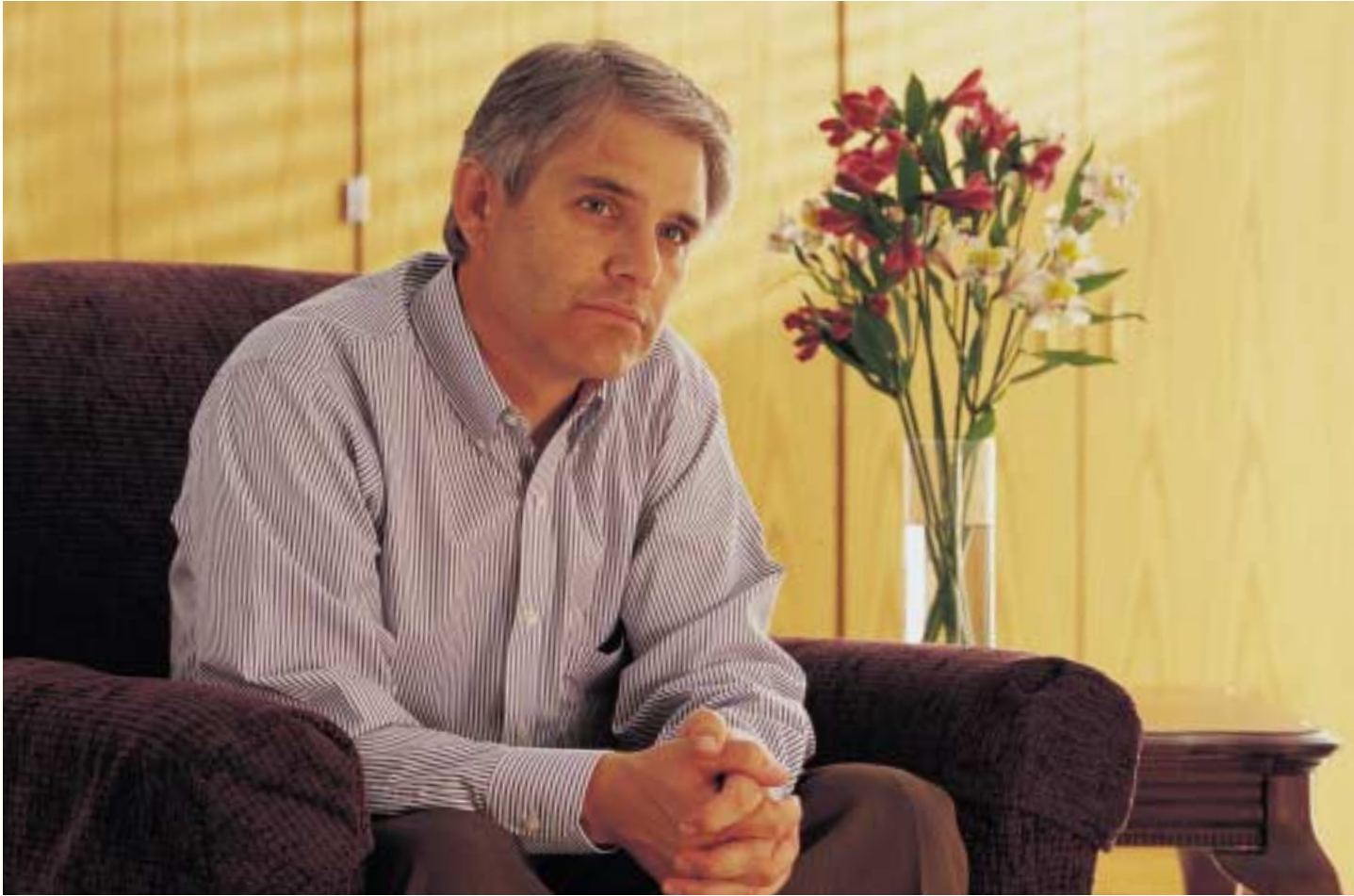
우리의 우선 순위

이러한 내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역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일과 활동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약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활동들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에 따라 활동을 계획한다면, 우리는 좀더 주님의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봉사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 속에 명심해야 할 중요한 원리는 주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두 가지 위대한 계명,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봉사,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입니다. 활동 계획은, 의미 있는 봉사 활동과 그들의 선택에 의해, 신권 지도자들이 승인한 문화적이고, 교육적이고, 오락적이고, 사교적인 적절한 활동에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 회원들의 영적인 필요 사항에 관련된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교회의 기본 프로그램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 풍부하게 잠재된 영의 결실을 맺는 데 있습니다.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활동이 반드시 그 규모에 의해 판단될 수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원리는 프로그램보다 중요하고 사람은 조직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보다는 원리와 지침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행동

회원을 강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성공을 거두느냐 하는 것은 내적인 힘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방법에 의해 가장 잘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생활에 의해 가장 잘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우리에게 “신념이란 ...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³ 해롤드 비 리(1899~1973) 대관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또한 그의 영에 의해 강화되는 것은 “십일조 영수증, 회원 기록 카드, 성전 추천서 등을 가진 카드 지참 회원이 되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비판하려는 성향을 이겨 내고 단지 외적인

우리 모두의 내부에 있는 영적 자아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성결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하고 신성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도 방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모습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권고했습니다.⁴

교회의 많은 독신 성인 회원들이 현재 그들이 원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 위대한 계명을 지키고 그로 인해 풍성한 축복을 받고 강화될 수 있는 능력의 면에서 모든 성도들과 동등합니다. 그들이 지닌 영성의 질과 주님에 대한 헌신은 다른 사람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들의 선행의 질은 그 어떤 사람이 하는 봉사와 마찬가지로 의미있고 보람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해와 간증을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분명히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질 때



성령은 우리 영혼에 평안을 말해 주고, 이 영적인 위안은 영적인 은사를 간구함으로써 옵니다. 그 은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구되고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회복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서신 치유자이시며, 보혜사는 병을 고치는 대리인입니다.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인에게 주어진 다음과 같은 권고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8) 더 높은 율법은 영적인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해결책에 의지할 때 풀릴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나, 어느 때에도 결코 나는 속세에 관한 율법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고리와 성약 29: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더 높은 율법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의무의 이행에 대한 요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복잡하고 도전적이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데 타고난 은사와 능력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예언자 엘마는 여러 면에서 그가 얻는 이해력의 근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알게 하셨음이라.”(엘마서 5:46)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내적인 힘과 안전함이 있다면 그러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뚝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마태복음 10:2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사람을 치유함

우리 모두에게 자주 필요한 치유는 영혼과 영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영적인 것을 우리 생활에 주입하는 일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신앙개조 제7조를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믿는다고 말해 줍니다. 제계 있어 이 은사는 영과 육을 모두 치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에 평안을 말해 주고, 이 영적인 위안은 영적인 은사를 간구함으로써 옵니다. 그 은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구되고 나타납니다. 그 은사는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겸손한 사람들로부터, 또한 올바르게 간증을 나눌 때 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회복의 능력으로”(니파이이서 25:13) 죽음에서 일어서신 위대한 치유자이시며, 보혜사는 병을 고치는 대리인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자 한다면 속사람은 죄로부터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악과 동행하는 일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죄, 특히 도덕적인 죄를 지은 자들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질 때까지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성적인 죄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 그리고 의식적으로, 혹은 무모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나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느낌

우리 모두의 내부에 있는 영적인 자아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조용하고 신성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자아 가운데서 이 부분은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의 창조자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 문을 엽니다. 우리가 물러서서 명상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성신이 우리의 이 특별한 부분에 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곳은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전지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힘의 근원은 죄가 우리 삶에 몰래 들어오도록 내버려둘 때 무력하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로마서 8:6)는 말을 들었습니다.

속에 있는 영혼을 강건하게 할 때, 우리는 지니고 소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됩니다. 어느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7 **분의 영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이란 햇빛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을
통과하지만 그로 인해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부는 얼마나 많이 느끼는가에 의해 측정되며, 영혼의 빈곤은 얼마나 적게 느끼는가에 의해 측정된다.”⁵

영원한 속사람

내부에 있는 영혼은 그 안에 저장해 둔 모든 것과 더불어 이생 저편까지 계속됩니다. 사려 깊은 어느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혼을 제외하고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영원히 존재하는 유일한 물질은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것뿐이다.”⁶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지식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리와 성약 93:1)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하늘을 돌로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다.*⁷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내적인 존재 안에 커다란 겸손함이 깃들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사사기 6:15) 기드온은 훗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탄압에서 구해 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구약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민수기 12:3) 모세는 세상에 살았던 예언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구약전서의 처음 다섯 권을 쓴 저자입니다.

영적인 햇빛

저 자신의 내적인 힘을 추구하면서, 저는 대관장단과 다른 총관리 역원,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많은 훌륭한 다른 사람들이 보여 주는 모범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불확실과 의심, 그리고 우리 모두를 멀하려고 하는 세력에 맞서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현혹하는 목소리와 우리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매혹적인 노래, 그리고 인생에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는 없으며 그릇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의 거짓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람들은 의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의로움과 소망 그리고 내적인 평화의 땅대 위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인생의 구불구불한 길과 여정을 어렵게 하는 침침한 안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영적인 햇빛에 의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햇빛은 우리가 그분의 영을 부지런히,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는 한 빛을 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교리와 성약 64:34)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상 기록한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던져질 수도 있는 인생의 뜨거운 용광로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느브갓네살은 불타는 용광로 속을 바라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을 경험했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다니엘 3:24~25)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서 내면의 영적인 평안과 힘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절대적인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인생의 구불구불한 길과 여정을 어렵게 하는 침침한 안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영적인 햇빛에 의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햇빛은 우리가 그분의 영을 부지런히,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는 한 빛을 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8)

우리의 영을 위해 심을 때, 그분의 영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이란 햇빛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을 통과하지만 그로 인해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영적인 빛이 세상적이고 더럽고 악한 것을 비추어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해 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주

1. 히버 제이 그랜트, Conference Report, 1936년 10월, 3쪽.
2. 앨버트 이 보우웬, *The Church Welfare Plan* (복음 교리 학습 과정, 1946), 44쪽.
3. 마틴 에이치 맨서, 편찬 *The Westminster Collection of Christian Quotations* (2001), 2쪽.
4.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헤럴드 비 리* (2000), 41.
5. William Rounseville Alger.
6. W. E. Channing.
7. “Renascence,” *Renascence and Other Poems* (1917), 14.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에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체적으로 자신을 강하게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운동, 적당한 식사, 충분한 휴식 등과 같은 것을 질문한다. 그런 다음 내적인 도덕적 힘을 기르기 위해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메시지에 나와 있는 제언을 그들에게 말해 준다. 이러한 제언 중 일부가 어떻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확실과 의심, 그리고 유혹에 맞서도록 도와 주었는가에 대해 간증한다.

2. 가족에게 건전지를 보여 주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 우리의 영성은 어떤 면에서 건전지와 같은가? “우리의 영적인 느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영적인 건전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3. 가족에게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토론하도록 권유한다. 가족과 함께 “영적인 햇빛”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는다. 어떤 면에서 영성은 햇빛과 같고 죄는 침침한 안개와 같은지를 토론한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우리의 생활에서 영적인 햇빛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 일

성 전 여 행

크리스틴 원밀 사우스워크



브라질에서는 소녀들의 열다섯 번째 생일은 중요한 날이다. 프리실라 비탈의 열다섯 번째 생일은 전통적인 파티나 무도회보다도 더 특별한 것이었다. 배와 버스를 타고 성전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 동안, 브라질은 노련한 축구팀과 백사장이 있는 해변, 그리고 열대 기후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이 고동치고 약동하는 문화 이면에 있는 저력은 어쩌면 가장 훌륭한 자원, 즉 따뜻하고 즐거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대부분의 활동에서 핵심 요소가 된다. 브라질 소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다려지는 날의 하나는 열다섯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다. 가족들은 때로 이 성년이 되는 축하 모임을 위한 호화로운 저녁 식사와 무도회 그리고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저축을 하기도 한다.

브라질 리오 네그로 스테이크의 회원인 프리실라 비탈은 열다섯 번째 생일을 어떻게 축하할 것인가에 대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프리실라의 생일은 어머니인 프란실레네가 스테이크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으로 17일간 여행을 떠나는 기간 내에 있게 되었다. 어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성전에 가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저축을 했으며 그녀가 저축한 돈은 프리실라를 성전에 함께 데리고 가거나 또는 여행 후에 그녀를 위해 전통적인 열다섯 번째 생일 파티를 열어 주기에 충분했다. 프리실라의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가깝게 지내는 친척들 대부분이 다른 교회의 회원들이었으며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녀의 생일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전에 가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프리실라는 이렇게 말한다. “고모와 삼촌 모두 제가 남아서 생일 파티를 열기를 바라셨어요. 특히 저는 가족 중에서 유일한 딸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전에 가기로 했을 때 그 일은 성전에 가는 것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프리실라의 가족은 1991년에 침례를 받았지만 곧 저활동 회원이 되었다. 1998년 초에 프리실라의 친구가 교회에 대해



마나우스의 충실한 교회
 회원들은(위, 맨 오른쪽) 매년
 배와 버스를 타고
 상파울루(위)까지 먼 거리를
 여행한다. 프리실라는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었으며, 나중에 온 가족과
 함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오른쪽)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프리실라에게
 세미나리에 함께
 가자고 했다.

“저는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가르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미나리에서는 모든 것이 이치에 맞았으며 저는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결국, 영은 저에게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가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이 너무 좋고 감미로워 울고 말았어요.” 하고 프리실라는 말한다.

프리실라의 어머니 프란실레네는 와드의 청녀들이 집에 오는 것을 환영했다. 그녀는 프리실라가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으며 머지 않아 본인도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프란실레네는 현재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커 가는 신앙의 증거

프리실라가 복음을 받아들여 개종한 것은 마나우스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이다. 인구 백오십만 명이 사는 분주한 이 항구 도시는 아마존 분지에서 산업과 상업의 중심지이다. 최초의 말일성도 선교사가 이 정글 도시에 도착한 것은 23년 전이었다. 그 이후로, 마나우스에서 교회는 다섯 개의 스테이크와 하나의 선교부, 그리고 14,000명의 회원이 있는 교회로

발전했다.

마나우스 회원들의 커 가는 신앙의 증거로서 매년 복합 스테이크 단위로 150~200명의 회원들이 브라질에서 가장 가기 쉬운 성전인 상파울루 성전으로 여행한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뺨뺨한 숲 때문에 마나우스에서 상파울루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비행기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8년 전에 그 도시의 여러 스테이크장단들은 성전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와 버스를 전세 내어 일년에 한 번씩 성전 여행을 가도록 계획했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회원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성전 여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단체 여행은 4일 동안 배를 타고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 근처에 있는 브라질 도시인 포르투벨류까지 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곳에서 회원들은 다시 전세 버스를 타고 3일 동안 밤낮으로 상파울루까지 여행을 한 다음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 근처에 있는 교회 소유의 아파트에 투숙한다. 그들은 4일 동안 성전 봉사를 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성전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프리실라는 어머니와 함께 성전에 관한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 잡지를 읽고, 경전을 공부했다. 또한 아버지쪽으로 4대까지 이름을 수집하여 그들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을 준비도 했다. 프리실라의 어머니는 그녀의 친정쪽으로 4대에 관한 가족 역사 자료를 수집했다.



185명의 회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여행자 그룹에 속해 있는 프리실라와 다섯 명의 다른 청년들은 초등학교 연령의 어린이를 돌보고 음식을 만드는 일을 도왔다. 밤에는 정글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갑판에 그물 침대를 매달아 놓고 잤다.

프리실라는 이렇게 말한다. “여행자 그룹에 속해서 여행하는 것은 너무나 영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두 성전에 간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부분 성전에 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단합되어 있었어요.”

그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버스 여행이었는데 그것은 밤낮으로 3일을 가는데다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많은 회원들이 심한 고통을 느꼈으며 다리가 부어 올랐다.

드디어 성전에

성전에 도착하자 프리실라는 곧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위해 침례실로 갔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성전 안에 있는 다른 곳으로 갔다. 프리실라는 생전 처음 상파울루에 와 있었지만 그 대도시에서 매일 성전에서 시간을 보냈다.

프리실라는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열다섯 번째의 생일을 성전에서 보냈습니다. 침례탕 책임자는 그 날이 제 생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제게 줄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성전에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다섯 사람을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을 뿐이었는데 그는 제게 대리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한 묶음이나 주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프리실라의 어머니는 딸의 삶에 일어난 또다른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성전 여행은 그 애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애는 다른 모든 회원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자신의 모습과 얼굴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꼈으며 모두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기꺼이 복음을 나누려는 프리실라의 모범과 태도는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그녀의 고모는 최근에 브라질 레시페 선교부에서 봉사를 마치고 귀환했다. 현재 프리실라는 아버지와 두 오빠에게 성전에 가서 가족이 인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그녀는 그 일이 곧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프리실라에게 있어서 열다섯 번째 생일 파티를 포기한 것은 희생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돈을 모아서 가능한 한 빨리 성전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라고 프리실라는 말한다. ■

크리스틴 원필 사우스위크는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스테이크 웨스턴 제2와드 회원이다.

하나님의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테 러와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신 분들이며, 살아 계시고 사랑이 많은 분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간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¹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어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² 하셨습니다. 참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목적과 사랑에 있어서 하나입니다.³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한합니다

그들의 사랑을 정의하자면 신성한 사랑입니다. 경전은 또한 그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⁴ 그 사랑이 무한한 이유는, 속죄가 이제까지 살았거나, 현재 살아 있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⁵ 그것이 무한한 이유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⁶ “여호와와 …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⁷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⁸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⁹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¹⁰ 만물에게 생명과 율법을 주십니다.¹¹ “주는 … 만인을 부르사 …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검거나 희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인가나 부인치 아니하”¹²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¹³

구 세주께서
그분을
따르라는

권유를 하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로 순종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감으로써 그 결과로 큰 축복들을 받았습니니다. 그와같이 우리도 그분의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한다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한하며 끝이 없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특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한하며 끝이 없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특징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은 경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많은 구절에서 우리를 위한 아버지와 아들의 더 높은 사랑과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특정한 축복은 조건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기 전에, 경전에는 여러 형태의 조건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조건의 유형

경전에서는 여러 유형의 조건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만약 …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렇다면 … [어떤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표시어인 만약 ~ 다면 이 내재되거나 명시됩니다.)

최 후의 심판때,
구세주께서는
이 생애 있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에 줄 것입니다.

- “… 할진대 [어떤 조건이 있다면], … [어떤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¹⁴
- “… 아니하면 … 할 수 없다”¹⁵
- “… 하는지를 보자” 예를 들면, 우리의 창조와 관련된 구절은 지상 생활의 주된 목적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¹⁶ 지상생활은 필멸의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필멸의 시험 기간이 하늘에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¹⁷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적 본질

경전에 있는 조건적인 말씀의 양식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적인 본질을 말해 주는 많은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만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¹⁸
-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하여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¹⁹
-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²⁰
-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 나를 만날 것이다”²¹
-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느니라”²²
- 주님은 “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²³십니다.
-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²⁴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적인 본질

어떤 특정한 축복의 경우 그에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 축복이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적이란 무슨 뜻인가?

조건적(conditional)이라는 말은 어원이 라틴어로서 con은 “더불어(with)”를 의미하며, dicere는 “말하다(to talk)”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conditional이라는 말은 “구두로 이야기된 한계 혹은 조건”이라는 뜻이다. 무조건적(unconditional)이라는 말은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 “네가 만일 ...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²⁵
-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 내가 ...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²⁶
-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이 줄 수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않을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²⁷
-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²⁸
- “어떠한 왕국이나 제각기 한 율법이 있고 율법에는 다 어떠한 한계와 조건이 있어,”²⁹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축복을 받을 자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 정하여진 율법과 조건을 ... 제정된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만 함이니라.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에 대하여 이르노라. 이는 나의 완전한 영광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완전함을 받는 자는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느니라.

“... 이 율법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곧 일체의 서약, 계약, 약속, 의무, 맹세, 이행, 관계, 교제, 또는 예약이니, ... 기쁨 부음 받은 자 ... 를 통하여 맺어지고 계약되고 결봉되지 ... 아니하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 후에 아무런 효험이나 효력이나 능력이 없으리라.”³⁰

필멸의 세상에 있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다른 율법들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한 한 가지 율법은 십일조의 법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³¹ 그러한 축복은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십일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³²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 ...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으며,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경하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대 너희를 축복하시며 번성하게 하시리라.”³³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니는 것이다.”³⁴

거짓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우리의 방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참으로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잘못된 생각을 믿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임으로 그는 나의 죄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든가 “하나님은 사랑이”³⁵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무조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려는 적그리스도들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니허는 거짓된 것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이르기를, 마지막 날에 만민이 마땅히 구원을 받을 것이며, ... 주가 만 인류를 지으셨 ... 으매 끝날 만민이 영생을 얻겠다 함이라.”³⁶ 애석하게도 일부 사람들이 니허의 무조건적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니허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니라.”³⁷ 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 나의



그림 : 조 스티븐, 죄인의 심판



우리는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에 찬 축복을 받게 된다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³⁸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

이것은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보편적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성도와 죄인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³⁹ 니파이는 시현에서 주님의 지상 성역을 본 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은 저들의 죄로 인하여 주를 값없이 여기어 주를 채찍질 할 것임에, 주께서는 이를 참으실 것이요, 주를 매로 칠 것이며 이를 또한 참으시리라. 참으로 사람들이 주께 침을 뱉었으나 주께서는 이를 참으실 것이니, 오직 인간들을 향하신 사랑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으로 견디시리라.”⁴⁰ 우리는 넓으신 구속주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죽게 될 모든 사람이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해 그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⁴¹

불사불멸과 영생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과 영광이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⁴²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속죄 덕분에

불사불멸의 은사는 무조건적인 것이 되었습니다.⁴³ 그러나 더 큰 은사인 영생의 은사는 조건적인 은사입니다.⁴⁴ 그 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신을 부인하고⁴⁵ 성전 의식과 성약을 존중해야 합니다.⁴⁶ 하나님의 사랑의 눈부신 꽃다발에는 영생을 포함하여 우리가 합당치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으며 자격을 갖추어야만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주님의 뜻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 할 수 없으며, 주님께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축복하시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⁴⁷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⁴⁸

회개하라는 권고

브리감 영(1801~1877) 대관장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제안하시는 모든 축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율법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며, 모든 의식을 행하고, 율례를 준수하며 자비를 사랑하고, ... 율법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리라. 그러나 자격을 갖추 때까지는 축복을 받지 못하리라.”⁴⁹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대관장은 비슷한 생각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축복과 은혜, 확신이나 사랑을 받기 위해 내 자신의 업적을 통해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하나님이나 형제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을 받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⁵⁰

스펜서 더블류 김블(1895~1985) 대관장은 주님께서는 “털끝 만큼의 죄도 묵과하지 않[으시며].”(교리와 성약 1:31) ... 회개를 통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 우리의 생활이 변화된다면 ... 하나님의 사랑 ... 에 대해 보다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⁵¹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완전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 받으리라.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받았던 빛마저 빼앗기리니, 이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

함이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⁵²

회개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과정에서, 노력과 결과 모두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은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는 그같이 행하는 자”⁵³에게 주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형을 마련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⁵⁴ 그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⁵⁵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그것을 구하고 그것에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⁵⁶ 그러한 사랑에는 봉사가 포함되고⁵⁷ 순종을 요구합니다.⁵⁸

신성한 율법에 순종하는 데는 신앙 곧 필멸의 생활에서 시험 받고 시련을 겪는 데 중요한 부분인 신앙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합니다.⁵⁹ 우리의 삶이

그의 모형을 따르는 것이 되겠다고 결심을 할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 순수해지고 신성해질 것입니다.⁶⁰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 가운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 차에 대해 관용을 베풀도록 가르칠 수는 있지만,⁶¹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에 관용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왕국의 교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⁶² 먼저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⁶³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한하고, 끝이 없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총만하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가장 훌륭한 축복은 영원한 율법에 대한 순종에 기초를 둔 조건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

- 주
1. 요한복음 3:16.
 2. 교리와 성약 34:3.
 3. 니파이이서 31:21; 앨머서 12:33; 교리와 성약 93:3 참조.
 4. 요한1서 4:12, 15~18 참조.
 5. 앨머서 34:9~12 참조.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이유인 또한 모든 충실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똥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게”(앨머서 26:15)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이사야 54:10 참조; 또한 니파이삼서 22:10 참조.
 7. 신명기 7:9; 또한 역대상 16:15; 시편 105:8 참조.
 8. “은 세상의, 세상과 관련된, 세상을 향해 펼쳐진, 혹은 영향을 미치는, 혹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범세계적인”(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4판, [2000], “보편적(universal)” 1883).
 9. 마태복음 5:45; 또한 니파이삼서 12:45 참조.
 10. 요한복음 8:12; 9:5 참조.
 11. 교리와 성약 88:6~13 참조.
 12. 니파이이서 26:33.
 13. 마태복음 6:6 참조; 또한 니파이삼서 13:6; 모로나이서 7:48 참조.
 14. 예, 니파이일서 2:20; 4:14; 니파이이서 1:9, 20; 4:4; 예이롬서 1:9; 옴나이서 1:6; 앨머서 9:13; 36:1, 30; 38:1; 50:20; 힐라맨서 4:15 참조.
 15. 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또한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영광을 얻을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32:21) 또한 이더서 12:34; 교리와 성약 25:15; 132:21 참조.
 16. 아브라함서 3:25; 또한 말라기 3:10; 니파이삼서 24:10 참조.
 17. 마태복음 25:21, 23 참조.
 18. 요한복음 15:10.
 19. 교리와 성약 95:12.
 20. 요한복음 14:23.
 21. 잠언 8:17.
 22. 사도행전 10:34~35.
 23. 니파이일서 17:40.
 24. 요한복음 14:21.
 25. 열왕기상 3:14; 또한 신명기 19:9 참조.
 26. 열왕기상 6:12.
 27. 교리와 성약 82:10.
 28. 교리와 성약 130:21.
 29. 교리와 성약 88:38; 또한 132:5 참조.
 30. 교리와 성약 132:5~7; 또한 앨머서 9:12; 42:13, 17 참조.
 31. 말라기 3:10; 또한 니파이삼서 24:10 참조. 주님은 십일조를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 제한하지 않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면에서보다는 영적으로 더 축복을 받는다.
 32. 교리와 성약 119:4~5. 십일조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기 위해 요구된다.(교리와 성약 85:3)
 33. 모사이아서 2:22. 그러한 조건적인 권고는 경전에서 많이 반복된다. 또한 니파이일서 2:20; 4:14; 니파이이서 1:9, 20; 4:4; 야곱서 2:17~19; 예이롬서 1:9; 옴나이서 1:6; 모사이아서 1:7; 2:31; 앨머서 9:13; 36:1, 30; 37:13; 38:1; 48:15, 25; 50:20; 힐라맨서 3:20.
 34. 요셉 스미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0쪽.
 35. 요한1서 4:8, 16.
 36. 앨머서 1:4; 또한 1:3, 5~6; 니파이이서 28:8~9. 참조. 그러한 무조건적인 개념(모든 사람을 위한 영생)은 의식, 성약 및 성전 사업의 필요성을 부인한다.
 37. 앨머서 41:40.
 38. 니파이삼서 12:20.
 39. 요한1서 4:19.
 40. 니파이일서 19:9.
 41. 로마서 5:8; 고린도후서 5:14~15 참조. 또한 고린도전서 15:22 참조.
 42. 모세서 1:39.
 43. 사도행전 24:15; 고린도전서 15:22; 앨머서 12:8; 교리와 성약 76:17; 요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5:29 참조.
 44. 교리와 성약 14:7 참조.
 45. 모로나이서 10:32; 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16:26 참조.
 46. 교리와 성약 132:19 참조.
 47. 앨머서 11:37 참조.
 48. 주님은 “네 범법을 변명할 수 없으려니와 네 길을 가서 다니는 죄 짓지 말라.”(교리와 성약 24:2)고 하셨다. 또한 요한복음 8:11; 교리와 성약 6:35; 29:3; 82:7; 97:27 참조.
 49. *Discourses of Brigham Young*, 존 에이 윌스(1954), 454.
 50. *Deseret News*, 1873년 11월 12일, 644.
 51. *용서가 낳는 기적*, 61쪽.
 52. 교리와 성약 1:32~33.
 53. 교리와 성약 46:9.
 54. 요한복음 13:34; 15:12 참조.
 55. 이더서 12:33~34; 모로나이서 7:46~47 참조.
 56. 모로나이서 7:48 참조.
 57. 갈라디아서 5:13; 모사이아서 2:18~21; 4:15 참조.
 58. 요한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요한1서 2:5)고 가르쳤다.
 59. 신명기 13:3; 요한복음 14:15; 15:6~7 참조.
 60. 마태복음 6:19~22; 교리와 성약 88:67~68; 93:11~20 참조.
 61. 신앙개조 11조 참조.
 62. 교리에는 구원의 계획, 신앙, 회개, 침례 및 성신의 은사 등이 포함된다.(모로나이서 8:10; 교리와 성약 68:25; 모세서 6:57~62 참조).
 63. 모사이아서 4:6~7.

모리스의 도움

로리 리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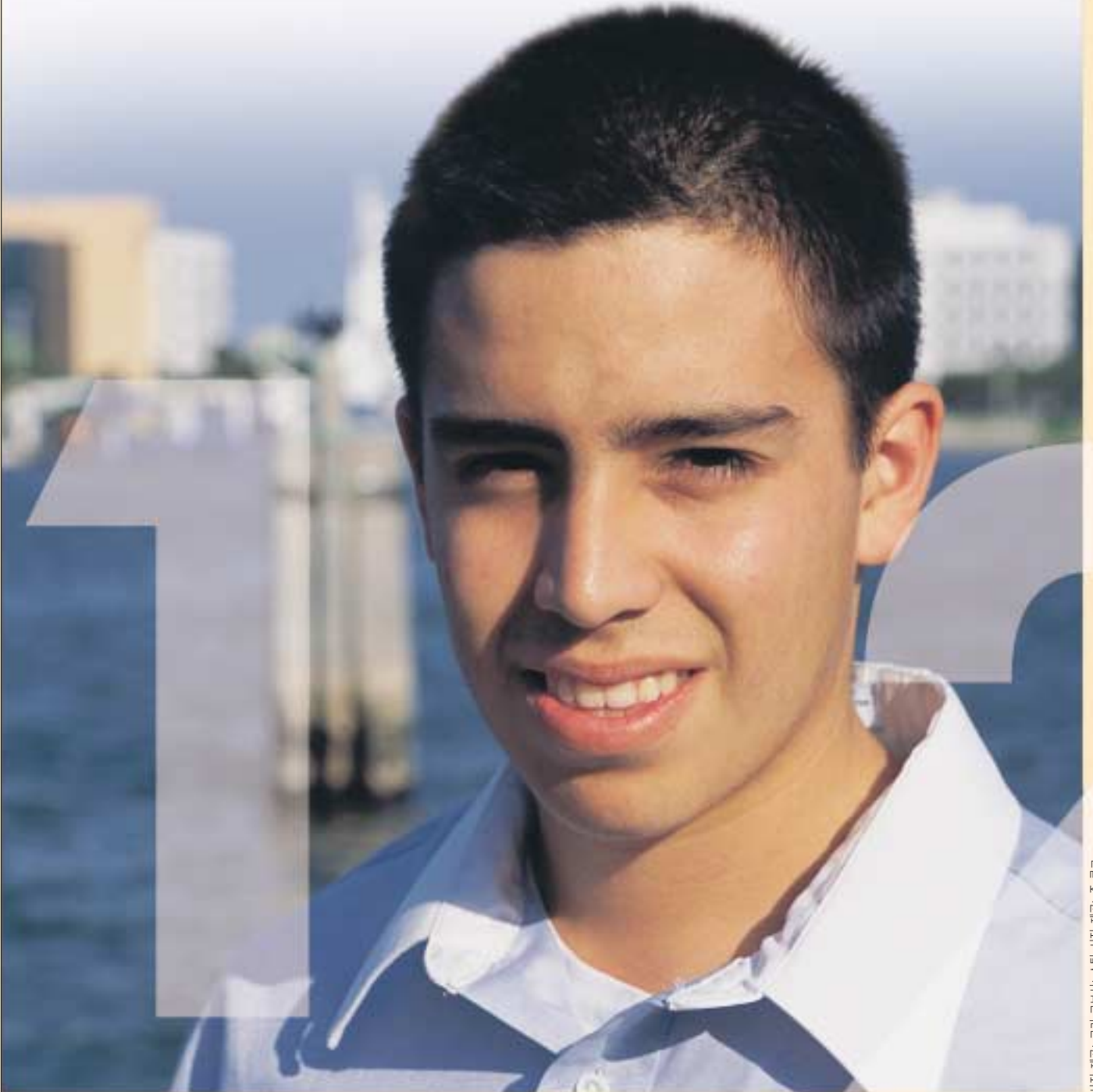


사진 제공: 로리 로브시; 스틸 사진 제공: 존 루크



고등 학교 1학년짜리 수학 박사가 방과 후에 그에게 1주일에 한번씩 개인 지도를 받기 위해 오는 교내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를 기다리며 교실에 앉아 있었다. 대수, 미적분 그리고 삼각 함수가 특기인 이 학생은 그 동안 매주 한두 시간씩을 내어 미국내 최고 고교 러닝 백으로 알려져 있는 축구 영웅에게 다항식이며 지수 방정식 등을 가르쳐 주었다. 축구 시험에서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대수 문제를 푸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이 때, 그를 구해 주러 개인 교사가 왔던 것이다.

한 학년을 마치면서, 개인 교습도 끝났다. 이제 수학 박사는 고대하던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수학 박사가 가르치던 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마이애미 대학에 체육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했다.

그래서 수학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그가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아빠가 그에게 수학을 가르쳤단다.’라고 말해 줄 거예요.”

2년이 지났다.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가까운 캐롤 게이블스 고등학교의 어느 교실에, 모리스

나바로는 예전처럼 앉아 있다. 학교는 30분 전에 이미 마쳤지만, 몇 해 전과 마찬가지로, 학생들 몇 명이 모리스 주위에 둘러앉아 수학을 배우는 중이다.

그의 이름은 모리스 나바로이고 지금도 수학 개인 지도를 한다. 여전히 누군가를 돕고 있다.

바쁜 청소년

모리스는 그의 봉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저의 봉사는 어머니의 영향이 크지요. 어머니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수학을 어려워 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지요. 저에겐 수학이 쉽기 때문에 도와 주는 것이 즐거워요.”

그는 의료 기관 두 곳에서 자선 봉사도 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모리스는 두 병원에서 아홉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돕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들의 휠체어를 밀어 주거나 그들이 침대에서 움직이는 것을 돕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자기를



모리스 나바로는 바쁜

청소년이다. 그러나, 그는 시간을 내어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두 병원에서 자원 봉사도 한다.

위해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환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또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즐거워요.”

그는 또한 “가르치는 일도 이와 다름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누군가가 ‘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비로소 제 일을 마쳤다는 느낌이 들어요. 병원에서 환자들과도 마찬가지로 그들 그 미소를 짓습니다.”라고 말한다.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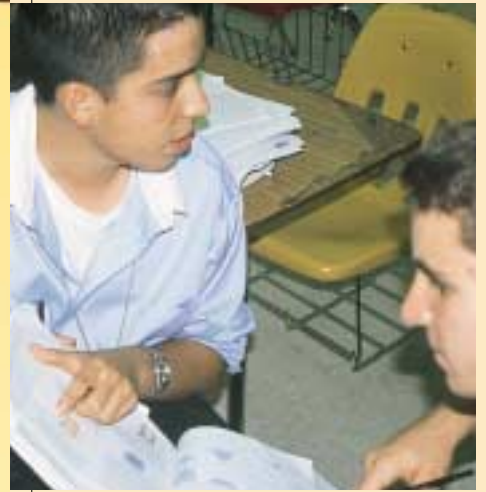
지난해에 있었던 이글 스카우트 활동은 모리스가 와드의 다른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보여 준 모범의 좋은 예이다. 모리스는 어느 토요일을 어린이 신원 확인의 날로 정하고, 어린이들의 지문 채취와 비디오 촬영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드 건물로 오도록 초대했다. 경찰관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방법에 대해 발표한 후, 참석한 부모들은 지문 카드와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씩 집으로 가져갔다. 이제, 혹 아이를 잃어버린 후 찾기 위해서 신원 확인이 필요할 경우, 부모님은 준비된



모범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스테이크 (스페인어 사용 교구)의 파운틴블로 와드 제1보조로 봉사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어린 집사로서 선교 사업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제사들을 부러워했었다. 그런데 이제 모리스의 차례가 된 것이다. “저는 청남들 중에서 가장 순위 형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순위 형들을 보면서 그러했듯이, 집사와 교사들이 저를 바라볼 때, 따르고 싶은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는

이글 스카우트 활동으로, 모리스는 어린이들의 지문 채취를 위한 초대 모임을 열고 부모님들이 함께 참석하도록 초대했다.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 씩, 또래 학생들에게 수학 요점들을 가르치는 개인 지도를 해 준다.



정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리스가 많은 시간을 내어 이 일을 행한 결과, 거의 100 여 명의 어린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추가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푸드뱅크(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역 식품 저장 시설)에 기부할 통조림 한두 개 씩을 올 때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큰 상자 세 개를 통조림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

“이 일을 추진하면서 달라지는 것을 보니까 즐거워요. 저는 정말로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절대로 그

비디오나 지문 카드를 사용할 기회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걸 써야 할 상황이 결코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좋은 안전망입니다.”라고 모리스는 말한다.

가족의 전통

모리스는 현재 18세로 11월이면 19세가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는 장기간의 매우 중요한 봉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모리스는 교회의 선교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할 때 반 친구들의 신기해 하는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선교 사업이란 무엇인가, 또는 지혜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등, 교회에 관한 주제라면, 다른 학생들은 모두 모리스를 바라본다. 코랄 게이블 고등학교에서 모리스는 유일한 말일성도이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선교 사업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는데, 저는 기꺼이 설명해 줍니다. 대부분 친구들은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2년



동안 선교 사업을 위해 떠난다는 말에 다들 놀라죠. 그래도 저는 선교 사업을 떠날 계획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20대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선교 사업을 나가지 못하셨어요. 우리 가족 중에 삼촌만이 유일하게 선교 사업을 나가셨지요. 그래서 저의 선교 사업은 저희 가족의 전통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인다.

수많은 작은 봉사들

그가 살아오는 동안, 모리스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작은 봉사를 해 왔다. 모리스한테서 개인 지도를 받은 코랄 게이블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수학 시험에 통과했고, 모리스는 그들의 성공에 자신이 기여했다고 느낀다. 부모님들은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그들의 자녀들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모리스에게 고마워 한다. 또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휠체어에 태워 다른 병실로 옮겨 주는 일도 했다. 아마 이런 작은 것들이 대단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모리스가 시간을 내어 행한 또 하나의 작은 봉사다.

똑같은지는 않겠지만, 혹 모리스는 이런 꿈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래의 어느 날, 미식 축구 스타가 그의 자녀들에게 그가 고등학교 때 알았던 친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얘들아, 모리스라는 아빠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그에게서 수학을 배웠다.” ■



질 의 응 답

제 친구들이 순결의 법을 알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 친구들은 제가 왜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민감한 주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아호나의 대답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은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생각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결혼 전의 순결과 결혼 후의 정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극적으로 변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결은 성스럽고 소중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운을 띄운다면, 여러분은 힘든 말다툼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압력이나 두려움 때문에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친구들과 토론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상적인 생각이 곧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순결은 가장 좋은 선택임을 알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규제가 되기 보다는—놀라운 자유, 평화 그리고 안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왜 순결의 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나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말이 생각날 것입니다. “순결하게 사는 것이 난 행복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결하게 사는 것을 바라신다고 생각해.”와 같은 짧은 대답이 아마 어떤 경우에는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보다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라는 소책자에 나오는 성적인 순결에 대한 내용을 좀더 깊이 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토론할 때 다룰 수 있는 몇 가지 요점입니다.

- 순결은 여러분이 중요한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 줍니다. 우정, 존경, 이해, 대화, 신뢰, 관심 나누기, 복음의 가치, 이러한 것들은 굳건한 관계를 세우는 기본 요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선 순위에 둘 때, 여러분은 적합하고 편하게 서로를 사귄 수 있게 됩니다.

- 순결의 법대로 생활하면 여러분은 자기 존중과 보다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순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다른 모든 훌륭한 가치보다 육체적인 외모에 더 가치를 두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순결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개성, 능력, 친절 그리고 선함의 가치를 알고 존중하도록 도와 줍니다.

- 순결은 또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 줍니다. 여러 가지 신체의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 또한 지켜 줍니다.

순결은 계명입니다.(갈라디아서 5:16~17, 19~21참조)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행복, 평화 그리고 다른 많은 축복을 얻게 됩니다.

-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경건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결의 법을 범하는 것은, 매우 신성한 은사를 조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 여러분은 스스로 원해서 이 율법대로 생활합니다. 순결은 축복입니다.

- 순결은 미래의 결혼을 보다 강하게 해 줍니다. 부부가 순결하면, 그들의 관계는 완전한 신뢰를 가지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대답

어느 날, 친구 몇 사람이 순결의 법은 낡은 것이라 오늘날에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얼른 제가 그 계명을 지키고 있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면서, 그러면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경험담으로 전에 누군가에게 거부 의사를 어떻게 밝혔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들으려 하지 않았을 때 저는 그녀로부터 떨어져 멀찌감치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의 몸은 성스럽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제 말을 귀담아 들었던 한 친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진 페르난도 다 실바, 20세.
브라질 브라질리아 북 스테이크
플래네티나 제2와드

친구들의 생각을 말로는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고, 저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자제해야만 했습니다. 저 혼자 외톨이가 되긴 했지만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친구들 중 몇 명은 좋지 않은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명은 이 중요한 율법대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린다 로페스 피에로, 16세.
에콰도르 과야킬 동 스테이크
이시도르 아요라 와드



경고

태초에 우리를 중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계획을 파괴하고 방해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필멸의 몸을 입을 기회를 박탈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으며 영원토록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악한 질투를 품었습니다. 그는 창조의 권세가 그 계획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유혹에 넘어가, 이 권세를 성숙하기 전에 사용하거나, 너무 빨리 사용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진보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 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나", 성도의 빛, 1973년 1월호, 15쪽) ■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과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를 피하고 결혼 후에 배우자에게 항상 충실하는 것은 성신의 동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에메카 오포에그부, 23세.
나이아가라 와리 지방부
우그보리코코 지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여성은 자신의 몸의 여왕이 되어야 한다”(1952년 4월 연차대회 말씀, 86쪽)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저의 영이 육체적 쾌락을 허용하면, 저는 자존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 자신을 존중할 수 없으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오직 제 영이 제 육신을 통제할 수 있어 도덕적으로 깨끗할 때, 저는 제 육신의 여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앤 수니븐, 20세.
핀란드 쿠오포오 지방부
조앤수 지부

저는 친구들에게 정숙한 여성이 되는 것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대신, 그런 여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마 다파, 23세.
가나 케이프 코스트 스테이크
올라 대학교 와드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면, 저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또 성적인 부도덕은 살인 다음으로 심각한 죄임을 설명합니다. (앨마서 39:5 참조) 제 친구들은 언제나

놀랍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으며 이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리나 쿠첸코, 19세.
러시아 모스크바 남 선교부
보로네즈 레보베레즈니 지부

깨끗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며, 고운 말을 씌우므로 우리는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깨끗한 삶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게 해 줄 것임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타기아페아 마갈로 장로, 27세.
사모아 아피아 선교부

제가 선교 사업을 나오기 전에, 제 친구들은 이 율법을 어기는 방법에 대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수한 생각이 순수한 행동을 낳는다는 우리의 생각을 가르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토 이 비소니 오 장로, 20세.
은두라스 산페드로술라 선교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우리의 육신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순결의 법에 따라

살으므로써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타히아 모우파 16세.
타히티 라로마타이 스테이크
우투로아 와드

저는 순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나누고자 노력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과 이 율법에 대한 경전의 가르침을 나눕니다.



마켈레타 포누아, 18세.
통가국 누쿠알로파 하카메
스테이크 마타하우 제2와드

질의 응답은 청소년 특집으로서 여러 나라에서 보내 온 응답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을 골라 게재합니다. 여러분의 답을 2003년 3월 1일 이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03/03, Liahona,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다음 주소로 이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cur - liahona - imag@ldschurch.org.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타지하거나 정서하면 됩니다. 성명, 나이, 주소, 소속 와드 및 스테이크 (지부 및 지방부)를 기재해 주십시오. 자신의 사진을 보내 주십시오. 사진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질문: 저의 아빠는 매우 바쁩니다. 저도 학교에서나 친구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서로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아빠와 가까이 지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도 그와 같이 하도록 권유한다.

교리와 성약 88:119: 주님은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는 권고를 커틀랜드 성전을 짓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의로운 삶과 의로운 가족을 이루는 일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을 준비할 때, “요긴한 것” 또는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십이사도 정원회 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예수님은 우선 순위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왕국을 세우고, 그의 의를 세우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6:33) ‘먼저 하나님의 왕국 세우기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우선 순위의 으뜸으로 두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그분의 자녀에게 영생을 가져오는 것이며(모세서 1:39 참조) 이에 수반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출생시키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인봉하는 일들을 수반합니다.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우선 순위에서 떨어집니다.”(“초점과 우선 순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00~101쪽)

패트리샤 티 홀런드 자매, 전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아름답고 맑으며 화사했던 어느 날, 저는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을 펴고 누가복음에서 저처럼 ‘많은 것에 번민’ 하는 여인이었던 마르다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던 쪽의 글자 대신 제 마음과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보이고 들리는 듯했습니다. ‘패트야, 패트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글을 읽는 중에 순수하고 개인적인 계시의 힘이 제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 한 가지] 만이라도 족하리라.’ (누가복음 10:38~42)

“영과 영의 교감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속삭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많은 것에 번민할 필요가 없느니라. 필요한 한 가지는

—진실로 필요한 단 한 가지는—눈을 들어 내 독생자를 바라보는 것이니라.’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교리와 성약 19:23)라고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But One Thing Is Truly Needful”, Tambuli 1988년 3월호, 35쪽)

우리 자신과 가족을 준비할 때 오는 방해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신의 지시를 분별하기가 쉬운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성전이 그와 같은 곳입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깊이 명상할 수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만드십시오. 우리 각자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인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은 곧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지상 생활에서 성취해야 하는 나의 가장 높은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나는 자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시간에도 나의 가장 높은 우선 순위는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회개하고 지금 당장 멈추겠다.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의 대답을 적어 보십시오. 그것들을 분석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조정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가장 중요한 것 먼저”,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9쪽) ■

필리핀 선교사





예수님의 말씀

용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37)



세실 오 사무엘슨 이세 장로
철심인 회장단

하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큰 빛을 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회개와 용서를 위한
은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구 세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평안을
연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고
말씀했습니다. 이 근심 많은 시대에, 익숙한
찬송가 하나가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복음이 지닌 평화는
참 아름답도다
그 빛은 찬란하여서
사고력 밝히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많을 것이며,
염려할 이유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볼
대관장님(1895~1985)이 말씀하셨듯이, 평안과
용서에 관한 주님의 교리는 떨 수 없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서의 본질은 … 그것이 걱정, 불안,
좌절감, 고뇌 속에서 고통하는 영혼에 화평을
안겨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²

누가가 기록한 주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후에
구세주께서 부여하시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누가복음 7:36~50 참조)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죄인으로 묘사된 한 여인이 예수께서
그 집에 계심을 알고 향유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상에 앉아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고 발을
한쪽으로 편히 뻗어 쉬시는 사이, 이 여인이
뒤로부터 가까이 다가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정성스레 발랐습니다. 집주인은 예수께서 죄인이
베푸는 친절한 행위를 용납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생각을
아시고 용서의 교리에 있어 가장 준엄한 가르침
중의 하나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빛진 자 두 사람을 대하는 한 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열 배나 많은 빛을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빛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는 너그럽게 두 사람을 다 용서해 주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누가복음
7:42)라고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빛을 많이 졌던
사람이 더 사랑하겠다고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부족한 관심과 대접을 그녀의
행동과 비교하셨습니다. 주님은 시몬이 이야기
속에 적게 빛진 자로 그리고 여인은 많이 빛진
자로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써 그분의 관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47)

예수님은 이제 여인에게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여인의 눈을 바라보시며, 그녀에게 평안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7:48, 50)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범한 죄를 둘러싼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인이 느꼈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

평안과 용서를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마태복음 9:1~8; 마가복음 2:1~12; 누가복음 5:17~26 참조)

구세주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 안에서 몰려 넘치는 군중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네 사람이 몸을 쓰지 못하는 친구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 예수께서 낮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데리고 왔습니다. 문이 심히 혼잡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내고 중풍으로 누운 친구를 예수님이 계시는 방 안으로 조심스레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위를 꺼려 하시기 보다는 그들의 신앙에 감동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마태복음 9: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훈계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9:2)

예 수님은 용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가장 준엄한 가르침 중 하나를 주셨습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병자가 아직 자리에 누워 있을 때, 함께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불경한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권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으로 그들의 믿음 없는 태도에 대응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5:23) 그렇게 물음으로써 구세주께서는 듣는 자들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마태복음 9:6; 요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9:6 참조)

이어 예수님은 돌이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마가복음 2: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명대로 곧 일어나 그의 길을 갔습니다. 불평하던 자들과 비난하던 자들은 이토록 확실한 기적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권능을 가지셨다는 분명한 암시에 대하여 더 이상 논란을 벌일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권능을 가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진실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 곧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

제자들은 해함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주님으로부터 배웠는데(마태복음 18:15~35 참조), 그것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가르침처럼 보였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마태복음 18:15)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구세주의 가르침은 커다란 태도의 변화를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는 눈”(마태복음 5:38; 레위기 24:20 참조)의 원리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가르침의 뜻을 분명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기를 바라면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마태복음 18:21)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모세의 율법의 요건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죄지은 자가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용서를 구하면, 해를 입은 사람이 두세 번 정도만 용서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³

예수님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마태복음 18:22)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한계도, 헤아리는 숫자도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어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마태복음 18:23~32 참조)는 가르침을 보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적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느 왕과 그 왕에게 돈을 빚진 종들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종은 빚이 일만 달란트 있었는데,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미화로 수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액수일 것입니다. 그 종이 빚을 갚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와 그의 가족을 노예 시장에 내다 팔라고 명했습니다. 위급해진 종은 시간과 인내를 간청하며 빚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에 감동한 주인은 불쌍히 여겨 그의 엄청난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감동한 그 종은 엎드려 주인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주인의 귀한 자비로 용서를 얻은 이 종은, 즉시 그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중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미화로 환산하면 몇 달러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그는 당장 갚으라고 거칠게 재촉했습니다. 그 동료 종이 그에게 시간과 인내를 간청했을 때, 이 첫번째 종은 자기가 방금 왕으로부터 갚없이 받은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자기 동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무정한 행위를 본 다른 종들이 이를 왕에게 고했습니다. “주인 [왕]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더하여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태복음 18:34~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 종처럼, 우리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사에 대해 큰 빚을 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같은 깨달음이 회개와 우리 자신을 위한 용서의 은사로 통하는 문을 열어 줍니다. 이같은 은사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신실하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7),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태복음 7: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의 행위나 범법을 용납하거나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죄를 받아 마땅한 행위와 태도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죄인을 완전히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누가복음 6:37)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죄인이라

구세주의 분명한 입장은, 회개를 전제로, 그분의 거룩한 속죄

희생을 통해서 “성령 [성신]을 모독하는”(마태복음 12:31; 또한 마가복음 3:28~29 참조) 죄를 제외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주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는 멸망의 자식들 이외에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 받지 못할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는 성신을 받고 자신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안 다음 그분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⁴

이리하여 구속주의 분명한 약속은 주님의 사명이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제외한]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다”(마가복음 3:28)는 것입니다.(요셉 스미스 역 마가복음 3:22; 모사이야서 26:29~30 참조)

용서의 은사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다른 두 가지에 대하여 기도로 간구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용서, 또는 하나님께 진 빚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신실함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태복음6:12),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누가복음 11:4)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내포된 뜻은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노력은 떨 수 없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원상 회복을 위해 어떠한 보상을 주고 받더라도, 우리나라 다른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행하게도 영원한 공의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용서가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에베소서 1:7)

용서의 은사가 가져다주는 축복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 각자가 그분의 평안을 느끼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로 감싸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영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

주

1. 찬송가 7장.
2. 용서가 낳는 기적(1969), 324쪽.
3.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제3판 (1916), 398~400쪽.
4.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1976), 341쪽.

권 지 못하는 자의 친구들이 그를 들어 예수께서 계시는 방 안으로 내리자 구세주께서는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선언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은연중에 자라나는 씨 의 비유



윌프레도 알 로페스 장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구세주의 비유에서 씨뿌리는
자는 믿음으로 심고 기쁨으로
추수합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씨 뿌리는 절기에 일하러 나가시면 저도 따라 나서곤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가축에 멩예를 씌우고, 씨레질과 쟁기질을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다 심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물으면, “저기 아래 땅에 심는다.”라고 대답하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가 좋은 땅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저는 쟁기 끝에 부서지는 흙에서 올라오는 습하고 진한 흙냄새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밭고랑을 내면, 저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땅은 비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들판에 나가 새롭게 돋는 푸르른 새싹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그 싹이 줄기를 내고, 곧 이어 곡식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식물들은 다 여물 때까지 계속 자랐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일꾼들은 곡물 다발들을 타작



마당으로 가져갑니다. 타작 마당에는 끈으로 연결된 막대기들이 큰 원을 이루며 놓여 있습니다. 곡물 다발들을 이 원 바깥 쪽에 놓습니다. 그러면 말이 와서 곡물 다발들을 밟으며 이 원 주위를 도는데, 이렇게 하면 줄기에서 곡식이 떨어지고, 낱알은 까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일꾼들은 채를 가지고 겨와 알곡을 분리합니다. 일이 끝나면, 일꾼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전통 요리인 양고기 구이를 즐깁니다.



그것은 시골의 아름다운 축제였습니다. 곡식은 부대에 보관하여 나중에 유용하게 쓰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심고 추수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했을지라도, 전체적인 성공은 근본적으로 땅의 비옥함, 날씨, 그리고 그 외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않는 조건들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 없이 씨앗은 싹이 트지도 못하고, 추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세주의 비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성역을 베푸시던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몰려온 많은 무리에게 씨뿌리는 자가 각자 다른 땅 곧, 돌이 많은 땅, 가시 덩굴로 덮인 땅, 비옥한 땅에 씨를 뿌렸는데, 땅의 비옥도에 따라 추수량도 각기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하나 더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비유는 무엇이 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지가 그 초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마가복음 4:26~29)

이 비유에서 씨뿌리는 자는 믿음으로 심고 기쁨으로 추수합니다. 씨를 심고 난 후, 어느 날 문득 뿌린 씨가 훔쩍 자란 것을 보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능력 이상의 어떤 도움과 함께, 비옥한 흙이며 햇빛, 그리고 비, 바람, 이슬 등의 힘으로, 잎이 싹트고 이삭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¹

영적인 성장

이 비유의 중요한 교훈은 가정과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거나 또는 선교 사업과 관련하여 봉사하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살아 있는 복음의 씨앗이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싹이 트고 온전히 꽃피는 것은, 우리의 영향력 너머의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의 선택 여부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선택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간증이 성숙한 열매 또는 개종으로 성장하려면, 우리의 결실 이면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사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돕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능을 가진 씨뿌리는 자로서, 다음의 사실을 이해하고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살아 있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르친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에 이르도록 자라고 선한 행위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추수의

날에 우리의 기쁨은 증만할 것입니다.

제가 칠레 산티아고 지역의 인디펜덴시아 와드에서 선교 책임자로서 봉사할 때, 우리 와드는 새로운 개종자의 삶에 성령의 영향력이 함께하도록 돕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와드는 칠레에서 훌륭한 신권 지도자들을 배출한 와드가 되어, 스테이크장 일곱 분, 선교부장 두 분, 지역 대표 두 분, 성전장단 한 분, 그리고 수많은 감독을 배출했습니다.

추수가 왜 이토록 성공적이었을까요?

그것은 비옥한 땅에 기인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누리는 기쁨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마가복음 4:28)는 것을 깨달은 데 기인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찬송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씨앗을 뿌릴 때, 우리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복음의 진리의 소중한 씨앗을 심으려 할 때, 진실로, 우리는 거룩한 도움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함 아신 주님
씨 홀로 두지 않네
주님 천사 하강하사
값진 곡식 보호하리
모든 들은 영광차고
충만히 익은 곡식
고난 중에 뿌려진 씨
영생 열매 넘치리² ■

윌프레도 알 로페스 장로는 칠레 지역에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

1.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292쪽 참조.
2. 아침 저녁 매일같이, 찬송가 180장.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르친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너를 얽어 매지 안도록 하라

네가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를 종으로 삼을 때까지
세상은 너에게 물건을 팔리라.
(마태복음 6:19~21 참조)

잡을 깨우

세 미나리 과정을
통해서,
물몬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 책이 진실함을 아는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하나요?
나는 교회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잃은 것은 없었고,
얻은 것은 매우 많았습니다.

아이잭 코피 모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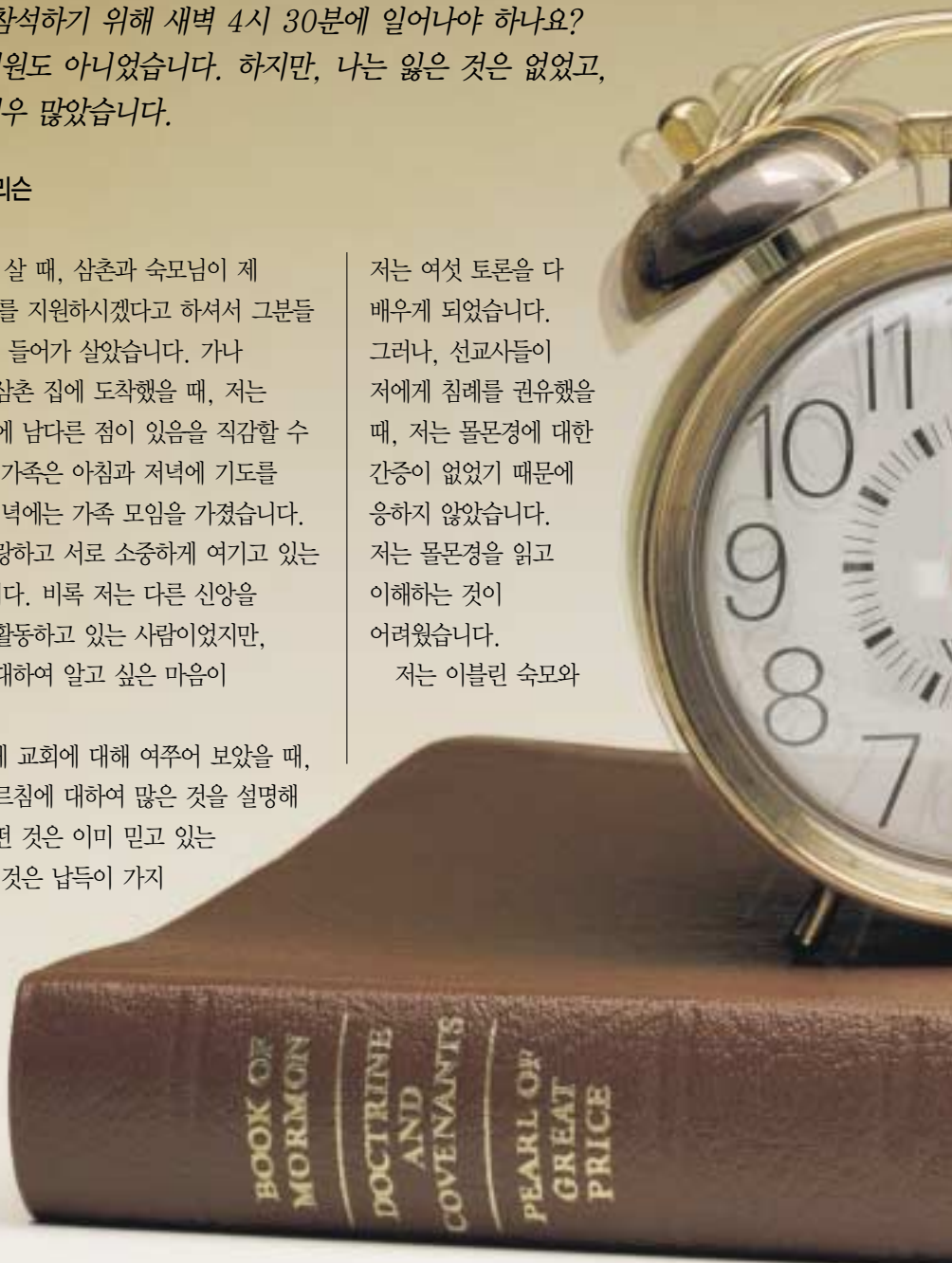
열 일곱 살 때, 삼촌과 숙모님이 제
공부를 지원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분들
택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가나
세컨디에 있는 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삼촌의 가족 안에 남다른 점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했고, 월요일 저녁에는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저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포 삼촌에게 교회에 대해 여쭙어 보았을 때,
그분은 교회 가르침에 대하여 많은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믿고 있는
것이었고, 어떤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선교사들에게
부탁하여,

저는 여섯 토론을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저에게 침례를 권유했을
때, 저는 물몬경에 대한
간증이 없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몬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블린 숙모와



내 벨소리

사포 삼촌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이미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두 주일 후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새벽 세미나리 반에 참석하라고 제게 권하셨습니다.

아침 4시 30분에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제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세미나리 교사인 솔러먼 애그보가 방문하여 참석하도록 격려해 주었고, 그분은 이미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세미나리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자, 하루도 빠지지 않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리 반에서는 몰몬경에 대해 가르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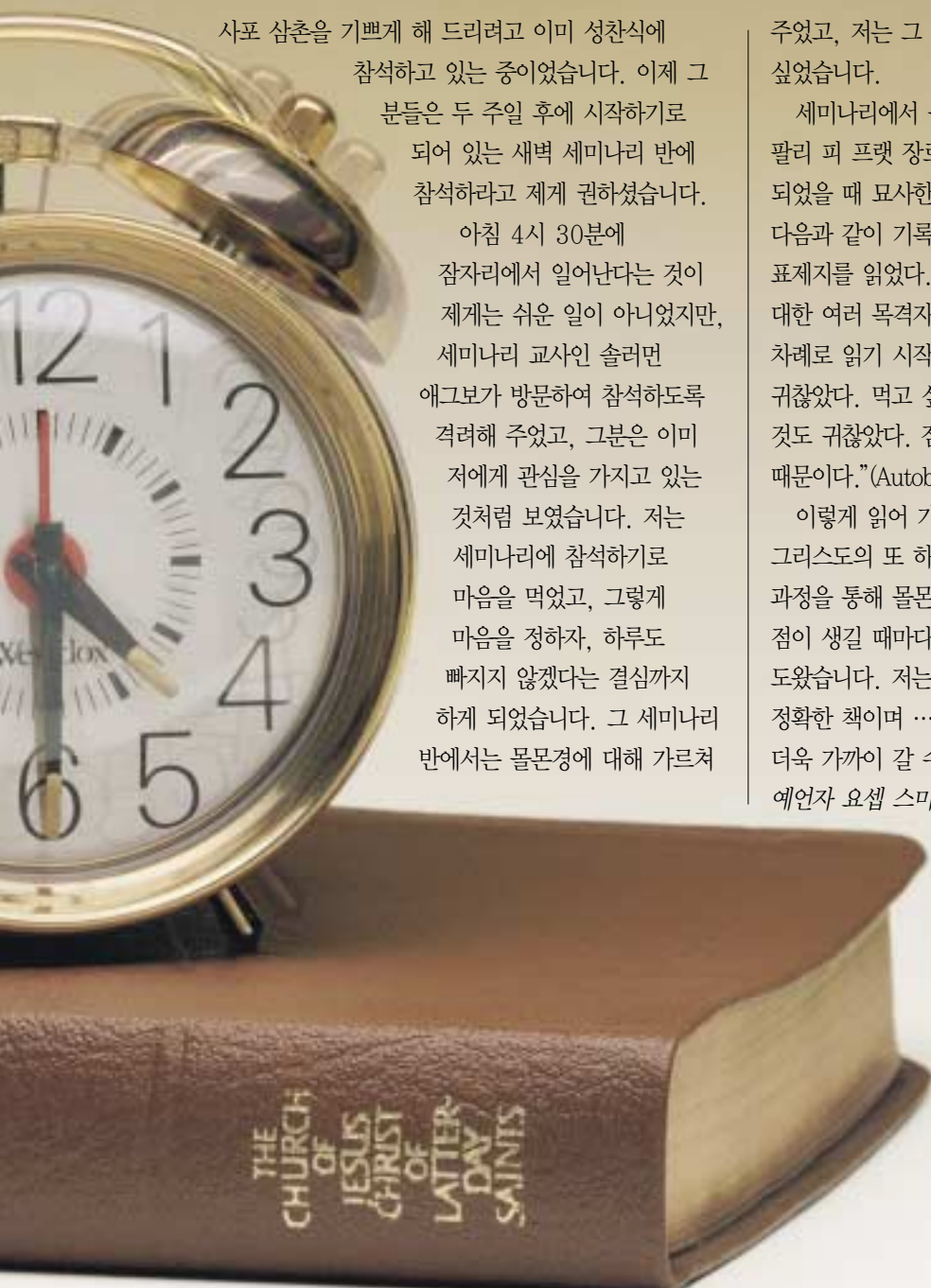
주었고, 저는 그 책에 대한 간증을 가질 수 있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세미나리에서 몰몬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 피 프랫 장로님(1807~1857)이 몰몬경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묘사한 느낌을 저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열망하는 마음으로 책을 펴서 표제지를 읽었다. 그런 다음 이 책을 받아 번역하게 된 경위에 대한 여러 목격자들의 간증을 읽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차례로 읽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읽었다. 식사하는 것도 귀찮았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밤이 되었을 때는 잠자는 것도 귀찮았다. 잠을 자기보다는 계속해서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1985년], 18쪽)

이렇게 읽어 가는 중에, 주님의 영은 진실로 몰몬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임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세미나리 과정을 통해 몰몬경을 읽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어려운 점이 생길 때마다, 세미나리 교사는 제가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간증을 얻었습니다.(요셉 스미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976년], 182쪽)

저는 1995년 3월 5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스물한 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행로를 바꿔 준 그 책의 신성함과 진실성을 가르치는 세미나리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

아이작 코피 모리슨은 나이지리아 오요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중이다.



세 가지 비유

어리석은 벌, 야간 고속 열차, 그리고 두 개의 등잔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 (1862~1933)

십이사도 정원회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의 세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신뢰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탈매지 장로는 22년간 사도로 봉사하면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개조라는 두 권의 책을 저술했다. 1914년 1월부터 탈매지 장로는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비유 시리즈와 이야기들도 출판했다. 이들 중 다음 세 이야기는 가장 빼어난 내용이다.

비유: 어리석은 벌

저는 때때로 편한 사무실이나 아늑한 서재와 같은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용히 혼자 일을 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은신처는 큰 건물의 타워 안 위층 방인데, 도심지 길에서 나는 소음과 혼잡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 방은 접근하기도 어렵고 비교적 사람의 방해도 거의 받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서 저는 책과 펜을 들고 평화롭고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어 놓고 앉아 있으면, 때때로 곤충들이 날아 들어와 그 방을 저와 함께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이 초대 받지 않은 손님들을 환영하지 않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펜을 놓고, 할 일을 잊은 채, 흥미를 가지고 이 날개 달린 손님을 지켜보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제 시간 낭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비나 풍뎡이 또는 벌 같은 곤충도 지식 습득의 문이 열려 있는 학생에게는 공부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인근 언덕 너머로부터 벌 한 마리가 제 방 안으로 날아 들었습니다. 한 시간도 넘게 그 벌이 날아 다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곤충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자, 온 힘을 다해 살짝 열린 창문을 나가려 애썼지만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갈 시간이 되어, 저는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쫓히고, 그 벌을 유도하여 자유와 안전을 찾아 나가도록 도왔습니다. 방 안에 남겨 놓으면 옛 경험에 비추어 곤충이 닫힌 방 안의 건조한 환경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벌을 몰아 밖으로 날아가게 하면 할수록 그 벌의 저항은 더 심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평화롭게 웅웅거리던 소리가 매우 성난 소리로 바뀌고, 날아 돌진하는 공격이 매우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방어망을 뚫고 날아 들어, 자기를 자유로 인도하고자 했던 제 손을 쓰았습니다. 결국 벌은 저로부터 도움도 해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피해 날아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위에 앉았습니다. 벌에 쓰인 곳이 몹시 아프기 시작했지만,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저항과 도발의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벌을 스스로의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일 후 그 방에 돌아왔고, 저는 글 쓰는 데 사용하던 테이블 위에서 말라 죽어 있는 벌을 발견했습니다. 그 벌은 자신의 생명을 상대로 벌인 완고함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벌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오해에 맞추면, 저는 그의 적이자, 완고한 박해자요, 파멸로 몰고 가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자신의 실수로 죽음에 직면한 그의 갇힌 생명에 해방을 주려 했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죽음의 감옥에서 구하여 바깥 자유의 공기 속으로 되돌려 보내려 노력했던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 벌의 어리석은 행동과 우리의 인생 사이에 유사함이 없다고 말할 만큼 우리가 그 벌보다 더 현명합니까? 우리들은 때때로 결국에는 뛰어난 지혜와 사랑스러운 보살핌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 일시적인 즐거움의 반대되는

쪽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역경에 격렬함과 노여움을 가지고 맞서기가 쉽습니다. 필멸의 인간이 겪는 고난과 고통 중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성역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재물을 잃는 것은 그들을 이기적인 방종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자유롭게 해 주는 하나의 축복이자 유익한 수단이 되어 왔으며, 그것은 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무한한 기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방편이 되어 왔습니다. 실망, 슬픔, 그리고 고난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절함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벌의 교훈을 생각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벌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오해에 맞추면, 저는 그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자신의 실수로 죽음에 직면한 그의 갇힌 생명에 해방을 주려 했던 그의 친구였습니다.

비유: 야간 고속 열차

대학 시절 중에, 저는 어느 지질학 반에서 미리 계획한 현장 답사반에 들어갔습니다. 지질학은 땅에 관한 모든 면과 땅의 형성 과정, 곧 이 세상에 대한 과학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하면, 돌의 구성, 곧 돌의 외형적인 구조, 그리고 돌이 지금까지 변화해 온 과정,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다루는 과학인 것입니다.

특정한 과제로 인해 우리는 현장에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수 마일 거리의 저지대와 고지대 땅, 계곡과 언덕, 그리고 산 정상과 협곡을 가로지르며 탐사하고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조사 시간이 다 되어갈 즈음에,

우리는 세찬 바람에 휩싸였고 곧 이어 심한 눈이 몰아쳤습니다. 그것은 계절에 맞지도 않고 예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우리는 언덕 위에서 눈에 갇힐 위험에 처했습니다. 폭풍이 절정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그 날 밤 짐에 갈 수 있는 기차를 타겠거니 희망했던 작은 역으로부터 수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길고 험한 산등성을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날 밤 늦게야 힘들여 기차역에 도착했지만, 폭풍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에는 심한 추위와 쏟아지는 눈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기다리던 기차마저 심한 눈으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불과 몇 마일 앞에서 운행을 멈추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품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기차는 큰



도시들을 연결하는 야간 고속 열차였습니다. 열차 시간표에 따르면 몇 군데의 중요한 역에만 정차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지만, 우리도 아는 바대로, 기관차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 외딴 역에도 서야만 했습니다.

한밤중이 훨씬 지나서, 기차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과 눈을 가르며 도착했습니다. 저의 동료들이 서둘러 승차하는 동안 저는 기관차 기사에게 마음이 끌려 동료들 뒤에 서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잠시 정차하는 동안, 조수는 물을 채우고, 기관사는 엔진 주위를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부품에 기름칠을 하고 조정해 맞추면서 지친 기관차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바빠 움직이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

사 실 그 기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엔진 전조등을 보시지요. 저 불빛이 철길 전방 90미터가 넘는 거리를 비추고 있지 않나요? 제가 하는 일은 그 불빛이 닿는 저 곳까지 지키는 일이지요. 제가 그곳까지 볼 수 있기에 거기까지는 노반이 열려 있어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같은 밤-무섭고, 거칠고, 사나운 밤, 마치 파멸의 힘이 들판 무대를 휘저어 통제할 수 없는 듯한 이 때, 폭풍이 으르렁거리고 사방으로부터 위험이 몰려 오는 이 밤, -이같은 밤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철로에 눈사태가 나거나, 폭풍으로 인해 다리나 철로가 휘어 늘어지거나, 산기슭에서 돌더미가 무너져 내리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재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철로에 장애가 생기거나 붕괴되는 사고가 생기면 기관사와 화부가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큰 충돌 사고에서 그들이 살아 남을 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부산하게 서두르는 기관사에게 이같은 내 생각을 서둘러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교훈입니다. 그는 불쑥불쑥 흐트러진 어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엔진 전조등을 보시지요. 저 불빛이 철길 전방 90미터가 넘는 거리를 비추고 있지 않나요? 제가 하는 일은 그 불빛이 닿는 저 곳까지 지키는 일이지요. 제가 그 곳까지 볼 수 있기에 거기까지는 노반이 열려 있어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포효하는 듯 밤에 내리고 있던 눈과 바람, 그리고 희미한 전등이 비추는 어둠을 통해 제가 보았던 것은 그의 입가에 번진 익살스러운 미소와 즐거운 듯이 깜빡거리는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저는 한 번도 이 낡은 기관차를-하늘이 도우사-불빛이 닿는 90미터 거리를 넘어서 운전할 정도로 빨리 몰아 본 적은 없으니까요. 이 기관차의 전조등이 언제나 제 앞 길을 비추어 주지요!”

그가 기관차 운전석으로 올라가자, 나도 서둘러 첫번째 객차에 올랐고, 나는 폭신한 의자에 들어앉아, 바깥 어둠 속 거친 황량함과는 정반대로, 따뜻함과 편안함에서 오는 더없이 행복한 즐거움 속에서, 그을리고 기름 때 묻은 기관사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깊었습니다.-그 신앙은 위대한 일을 해내며, 용기와 결단력을 주고, 행동으로 이끌어 줍니다. 만일 그 기관사가 약해지고 두려움에

자신을 내맡겼다면 어떠한 일이 지체될 수 있었는지, 어떠한 위대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어떠한 자비와 구제의 사명이 좌절될 수 있었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폭풍이 덮치는 절길 전방의 불빛이 닿는 거리는 매우 짧았고, 그 기관사는 이 짧은 공간에서만 기차를 몰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후의 일, 아니 단지 며칠 또는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몇 야드 전방 또는 바로 몇 피트 앞에 놓인 우리의 앞길을 밝혀 주듯, 우리의 의무는 분명하고, 우리의 진행 방향은 환합니다. 다음 노정에 이어지는 이 짧은 가시 거리는 하나님의 영감의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니, 자, 앞으로 나아갑시다!

비유: 두 개의 등잔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소장하고 있는 물건들 중에 지금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등잔으로서,

지난 옛날, 손때가 묻도록 함께하던 즐거운 기억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등잔은 중,고등 학교와 대학을 다닐 때 쓰던 것인데, 같은 종류의 등잔 중에서는 최상품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렵게 번 돈으로 산 탓인지, 제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던 물품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날 저녁 무렵, 저는 공부하며 기거하던 방을 나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열린 하늘 아래 명상에 잠기는 한편 앉아서 쉬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낯선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깨에 작은 가방을 하나 메고 있었는데, 상냥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안에서 의자 하나를 더 가지고 나왔고, 우리 둘은 땅거미가 지고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학생이라니 오늘 밤에 해야 할 일이



많겠네요. 어떤 등잔을 사용하시지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등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여 주고 싶어요. 이것은 최근 응용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고안된 등잔인데, 여태까지 나온 어떠한 등잔보다도 훨씬 좋을 거예요.

저는 크게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등잔이 하나 있는데, 시험을 거쳐 인증된 제품이에요. 밤마다 친구처럼 함께한 지도 오래 되었네요. 그것은 아르강 등잔인데, 최고 제품이죠. 오늘 마침 손질하고 깨끗하게 닦아 놔서, 불을 켤 준비가 되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등잔을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누구 것이 더 좋은지 비교해 보죠.

우리는 제 공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마치 가벼운 약한 상대와 겨루기 위해 시합장에 들어 서는 운동 선수와 같은 기분이었다. 저는 잘 손질한 아르강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제 손님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다. 같은 종류의 등잔 중에서는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손질까지 이렇게 잘 된 등잔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심지를 위 아래로 움직여 보더니,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서용 등잔이 이토록 좋을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좋아했습니다. 그는 현명해 보였고, 분명히 비위를 잘 맞추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하기에, 제 등잔을 사랑해요.” 그 시대에 유행하던 어떤 표현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바꿔 되뇌어 보았습니다.

“이제 괜찮다면, 제 등잔에 불을 붙여 보겠어요.”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로체스터”로 알려진 등잔을 꺼내었습니다. 그의 등잔은 제 것과 비교해 볼 때 마치 건물의 연관을 따라 연결되어 있는 공장의 굴뚝 같은 등피가 있었습니다. 그 심지 구멍은 손가락 네 개는 들어갈 만큼 넓었고, 그 밝은 빛은 방 안 구석까지도 밝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밝은 불빛 아래, 제 작은 아르강 심지는 약하다 약한 누런색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비교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등잔이 이토록 약하고

희미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불빛 아래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일하고, 공부하고 힘써 왔던 것입니다.

“제가 그 등잔을 사겠어요. 더 이상의 논의나 설명도 덧붙일 필요가 없겠네요.” 저는 그 날 밤, 새 물건을 실험실로 가지고 가 광도를 측정했습니다. 그것은 48축광이 넘는 것으로, 제 독서용 등잔에 비하면 광도가 족히 네 배는 넘었습니다.

물건을 구입한 지 이틀이 지나, 저는 정오 경에 길에서 그 등잔 장수를 만났습니다. 저의 물음에 그는 사업이 잘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장사가 잘 돼 공장에서 공급이 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사를 하지 않나 보죠?”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교훈적이었습니다. “대낮에 등잔을 팔러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밝은 대낮에 불을 켜 보았다면 학생도 하나 살 마음이 났겠어요? 제 등잔이 더 밝다는 것을 보여 주려면 시간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야 제가 보여 주는 등불이 더

좋은 걸 알아서 사고 싶어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일부, 지극히 작은 일부라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

제 등잔을 판 상인은 제 등잔을 헐뜯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다 밝은 빛을 제 약한 불꽃 옆에 두기만 했습니다만, 저는 더 좋은 그의 등잔을 서둘러 샀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는 종으로 파송되어, 사람들의 믿음을 공격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든 신조라는 불안정한 불꽃의 희미한 어두움을 명백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세상에 보다 나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업은 건설적인 것이지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 관한 그 이상의 의미에 관해서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보도록 하고, 가슴이 열린 사람은 이해하도록 해 줍시다. ■

Improvement Era에서 발췌. 1914년 9월, 1008~1009; 1914년 1월, 256~258쪽; 1914년 7월, 807~809쪽

7 로체스터 등잔의 밝은 불빛 아래, 내 작은 아르강 심지는 약하다 약한 누런색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한 비교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 등잔이 이토록 약하고 희미한 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불빛 아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일하고, 공부하고 힘써 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

아이렌 코임브라 드 올리베이라 클라우디오

지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커다란 운동장에 들어갔을 때, 아름답게 꽃꽂이를 한 꽃들을 보았고,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침묵 속에서 경건하게 기다리는 수천명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나는 자리를 잡고 조용히 기다리며 찬찬히 주변을 살폈다.

최근에 개종한 나로서는 이번 대회가 처음 참가하는 지구 대회였다. 나는 내가 속한 브라질 지역의 곳곳에서 온 회원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난생 처음으로 사도를 직접 보고 듣고 싶었다. 방문 직원인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몹시 궁금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다를까?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일까?

대회에 참석하려 집을 나서는데, 교회 회원이 아닌 남편이 내게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하는 말을 들으려 간다는 말이지. 그가 거룩한 사람일까?”

“저도 몰라요. 갔다 와서 말해 줄게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홀랜드 장로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이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증거를 갖게 되기를 소망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에게 내 경험을 어떻게 말할지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지역 지도자들과 총관리 역원들이 들어섰을 때, 나는 그들 중 어느분이 사도님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외모로 보아 다른 사람과 특별히 구분되는 다른 무엇이 전혀 없었다. 마침내 어느분이 홀랜드 장로님인지 알아보았을 때, 나는 이런 의문을 가졌다. “저분이 남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개회 찬송과 기도와 지역 지도자들의 말씀이 있을 후에 사도님의 부인인 패트리샤 티 홀랜드 자매님이 소개되었다. 그 분은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했지만, 나는 그 분이 전하는 말씀을 그 분의 모국어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 분은 단순히 우리 귀에만 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 분은 또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전했다.

그 분의 말씀이 끝난 후에 홀랜드 장로님이 연단으로 걸어가셨다. 그 분이 말씀을 시작했을 때,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평범하게 들리는지 놀랐다. 그러나 그 분이 말씀을 계속하는 가운데 나는 마음 속으로 이분은 참으로 주님의 대표자이며, 그 분의 메시지는 참되다는 증거를 느끼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분도 또한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 보였겠지만, 세상의 구세주가 되는

승고한 사명을 지니셨다. 홀랜드 장로님은 말씀을 마치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라는 간증을 하셨다. 영은 내게 홀랜드 장로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도록 지명 받았으며 그가 참으로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다. “그래 그 사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외모로 보면, 다른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그 분은 정말 그 이상이었어요.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예요.” ■

아이렌 코임브라 드 올리베이라 클라우디오는 브라질 레베이르도 프레토 스테이크 자담 인디펜덴시아 와드의 회원이다

사도인 홀랜드 장로님이 말씀을 시작하자, 나는 마음 속으로 이분은 참으로 주님의 대표자이며, 그분의 메시지는 참되다는 증거를 느끼기 시작했다.



의심하지 않아요

쥬세페 마티넨고

선 교사들이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을 슬라이드로 보여 주었을 때, 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진리를 찾는 그의 이야기가 어떤 면에선 내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했다.

나는 당시에 스무 살이었고 내가 태어난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다. 나는 5년간 부모님의 종교가 내게 줄 수 없었던 답을 찾고

있었다. 이러한 답을 다른 종교와 철학에서 구했지만, 그 모든 것에는 뭔가가 부족한 듯했다. 선교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답을 찾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나는 일부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고 심지어 다니던 대학까지도 떠났다. 내 친척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었다.

1984년 말엽에 거리에서 선교사들을 만나 그들에게 집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교회에 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지만, 웬지 그들과 말하고 싶었다.

며칠 뒤에 나는 내 방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보여 주기를 간구했다. 기도하는 중에 큰 평안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에 초인종이 울렸다. 선교사들이 왔을 때, 나는 그것이 내가 구하던 응답이란 것을 알았다.

두 번째 토론을 하는 중에 선교사들은 나와 어머니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우리의 반응은 매우 달랐다. 몰몬경을 상당히 많이 읽은 후, 나는 금식과 기도를 했고 선교사들의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확증을 얻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침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선교사들이 떠난 후에, 어머니는 내게 어려운 선택을 제시했다. 내가 침례를 받는다면,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게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나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날 밤 집에서 나왔다.

그 다음날 선교사들과 지부장과 나는 어머니에게 찾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한 달을 기다려 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단지 어머니에 대한 존중과 내 소망이 진지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 달에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쳤다. 아무것도 어머니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어머니는 다시 침례를 연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명확했다. 그렇지만 나는 기다릴 수 없었고, 1985년 2월 15일에—그 때까지의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날—침례를 받았다.

어머니는 내 결정에 분노했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지부장님과 만나, 함께 기도를 드렸고, 삼촌에게 같이 살고 싶다고 부탁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삼촌은 내게 대학에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낙하셨다. 하지만, 삼촌은

내가 교회를 가거나 선교사들을 돕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었다. 마침내, 삼촌은 내가 멜기세덱 신권을 받게 될 지방부 대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을 막으셨다.

다시 한 번 나는 평온한 삶과 복음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내겐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그 토요일에 나는 일찍 일어나, 옷을 꾸리고, 집을 떠났다.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장로 정원회에서 지명을 받아 새로 침례 받은 가족의 집을 방문했을 때 왔다. 나는 그곳에서 그들의 딸 지오바나를 만났다.

얼마 후에 지오바나도 침례를 받았고,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다. 그런데 결혼하던 바로 그 날 그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정 고지서가 왔다. 모친이 그 결혼을 막을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다. 몇 달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낸 끝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했다. 지금 우리에게 아름다운 네 명의 자녀가 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어려운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다. 주님은 우리를 크게 축복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

쥬세페 마티넨고는 유타 오름 북스테이크 팀파노고스 파크 제5와드 회원이다.

매우 특별한 성찬보

후안 알도 레오네

19 95년에 나는 잊지 못할, 지난 8년 동안 선교부장의 보좌로 봉사했던 광활한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선교부에서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빌라 알렌드 지부의 지부장 부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 다른 단위 조직에서 두 차례나 그 부름에 봉사한 적이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했다. 새로운 부름에서 봉사하며 아르헨티나에서의 교회 성장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 나는 복음에서 갖게 된 유산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0년 전에 코르도바에 있던 최초의 지부가 둘로 나뉘어졌다. 그 첫 번째 분리로 인해 한 지부 (현재의 빌라 벨그란도 와드가 시내 서쪽 지역에 세워졌다. 그 후 그 지부는 여러 해를 거치며 다른 많은 단위 조직들이 생겨나는 모태가 되었다.

새로운 지부가 조직될 때마다, 빌라 벨그란도 와드는 강건한 나무의 관대한 줄기처럼, 연약한 어린 새싹에게 지도자와 회원들을 내어주고, 또한 연단이며 의자며 탁자며 성찬 집기 등등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나누어 주었다. 새로운 지부가 완전히 갖추어진 후에, 이러한 여분의 물품들은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지부에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가구며 기타 물건들이 훌륭하게

선 교사들이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을 슬라이드로 보여 주었을 때, 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이 참됨을 알았고, 그 지식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했다.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 흩어져 갔다.

오늘날 빌라 알렌드에 있는 작은 지부는 아름다운 집회소와 훌륭한 젊은 감독이 있는 와드가 되었다. 하지만 내가 지부장으로 봉사하기 시작하던 1995년 당시에, 우리는 크고 오래된 임대

건물에서 예배를 보았다. 어느 일요일 우리가 낡은 건물에 모였을 때, 보좌 한 명과 함께 성찬 축복을 했다. 내가 성찬을 집행한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었다. 대체로 어린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이 특권을 누렸었다.

처음에는 성찬 집기를 덮은 하얀 성찬보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빵을 나누던 중에, 아름답게 수 놓아진 산타 세나(성찬)란 단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고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간단하고 평범한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분의 참된 교회 회원으로 60년간 받아 왔던 많은 축복들을 일깨워 주셨다. 수 놓아진 그

글자들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다. 40년 전에, 이 도시에서 부친과 함께 교회 개척자가 되신 모친이 당신의 혼수품에서 린넨 조각을 꺼내 내게 그 가운데에 산타 세네(성찬)라고 쓰도록 부탁하셨다. 모친은 그 글을 섬세하게 수를 놓으신 후 지부에 성찬보로 기증하셨던 것이다.

계속되는 성장과 변화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단위 조직들이 생겨나는 동안, 나는 때로 그 성찬보의 행방에 대해 궁금해 했었다. 1979년 빌라 벨그란도 집회소 화재 때 타버렸을까?

그런데 그 성찬보가 내 앞에 안전하게 있는 것이다. 그 성찬보를 보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았다. 수많은 단위 조직 분리와 수백 번의 세탁과 다림질과 수많은 사랑에 넘친 손길을 거쳐 성찬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원래 시작된 지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교회에서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성찬보가 처음 만들어진 그 오랜 예전에, 나는 처음으로 매우 젊은 신참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해 왔고 성장을 거듭해 왔다. 또한 다른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그 특별한 성찬보와 재회하며 나는 변해 왔던 것과 변함 없던 것 모두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

후안 알도 레오네는 코르도바 아르헨티나 세이라스 스테이크 빌라 알렌드 와드의 회원이다.

보 좌와 함께 성찬을 집행하며, 처음에는 성찬보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산타 세나(성찬)라는 말을 보고는 온갖 기억들이 마음 속에 되살아났다.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자

“주님의 사자”로 불렸던 사람치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놀랍도록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브리감 영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예언자의 꾸지람이 있는 후에,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브리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응답은 진지하고 간결했습니다. “요셉,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영 대관장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감정 면에서 작은 어린 아이와 같아져야 합니다 ... 겸손하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같이 된다면, 우리는 발전하여 지식과 이해력이 증가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브리감 영[1997], 179쪽)



그 일은 2월에 일어났습니다.

1828년 2월에, 마틴 해리스는 금판에서 옮겨 적은 글자와 그 번역문을 뉴욕시, 콜롬비아 대학의 찰스 앤톤 교수에게 가져갔습니다. 마틴 해리스의 기록에 의하면, 앤톤 교수는 그 글자들이 “애굽, 갈대아, 앗시리아,

아라비아 문자이며, 그것들은 모두 참된 글자라고 말했습니다. 앤톤 교수는 내게 그 문자들이 참된 문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 나는 증서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고, 그 집을 떠나려는 찰나에, 앤톤씨는 나를 불러 세우더니, 그 젊은이가 그 금판을 발견한 곳에 금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 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게 그 증서를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증서를 꺼내 그에게 건네 주자, 그는 그것을 받아 찢어 버리고는, 요즘은 성역을 베푸는 천사 같은 것은 없으며, 만일 금판을 자신에게 가져온다면 자신이 그것을 번역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금판의 일부가 인봉되어 있다고 알려 주며, 내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나는 인봉된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1:20)

앤톤 교수는 이사야의 다음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이사야 2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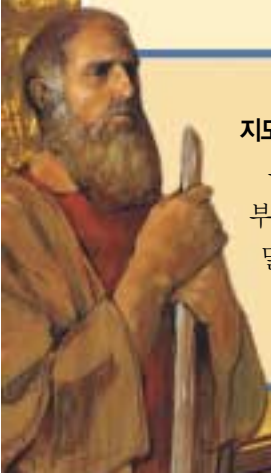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우리는 지도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받은 부름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하며 사랑이 가득하며 신앙, 소망, 자비의 덕을 지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면 어떠한 일이나 모두 삼가 조심히 행하는 자

아니면 이 사업을 도울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2:8)

사도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베드로전서 5:5) ■



리아호나

2003년 2월호

활용하기

토론 제언

-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 2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모든 것이 영적이라고 설명한다. 십일조, 지혜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같은 계명을 토론한다. 이러한 계명에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강화되는지 묻는다.
- “생일 성전 방문”, 8쪽: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하기를 원했던 것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적은 언제인가? 또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선택했어야 했던 적은 언제인가?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느꼈는가?
- “하나님의 사랑”, 12쪽: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우리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쳤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용서의 조약돌”, 16쪽: 가족이나 반원에게 신발에 자갈이 들어간 적이 있었는지 묻는다. 적절하다면 용서했을 때 얼마나 좋은 느낌을 느꼈는지 강조하며 용서함으로써 갖게 된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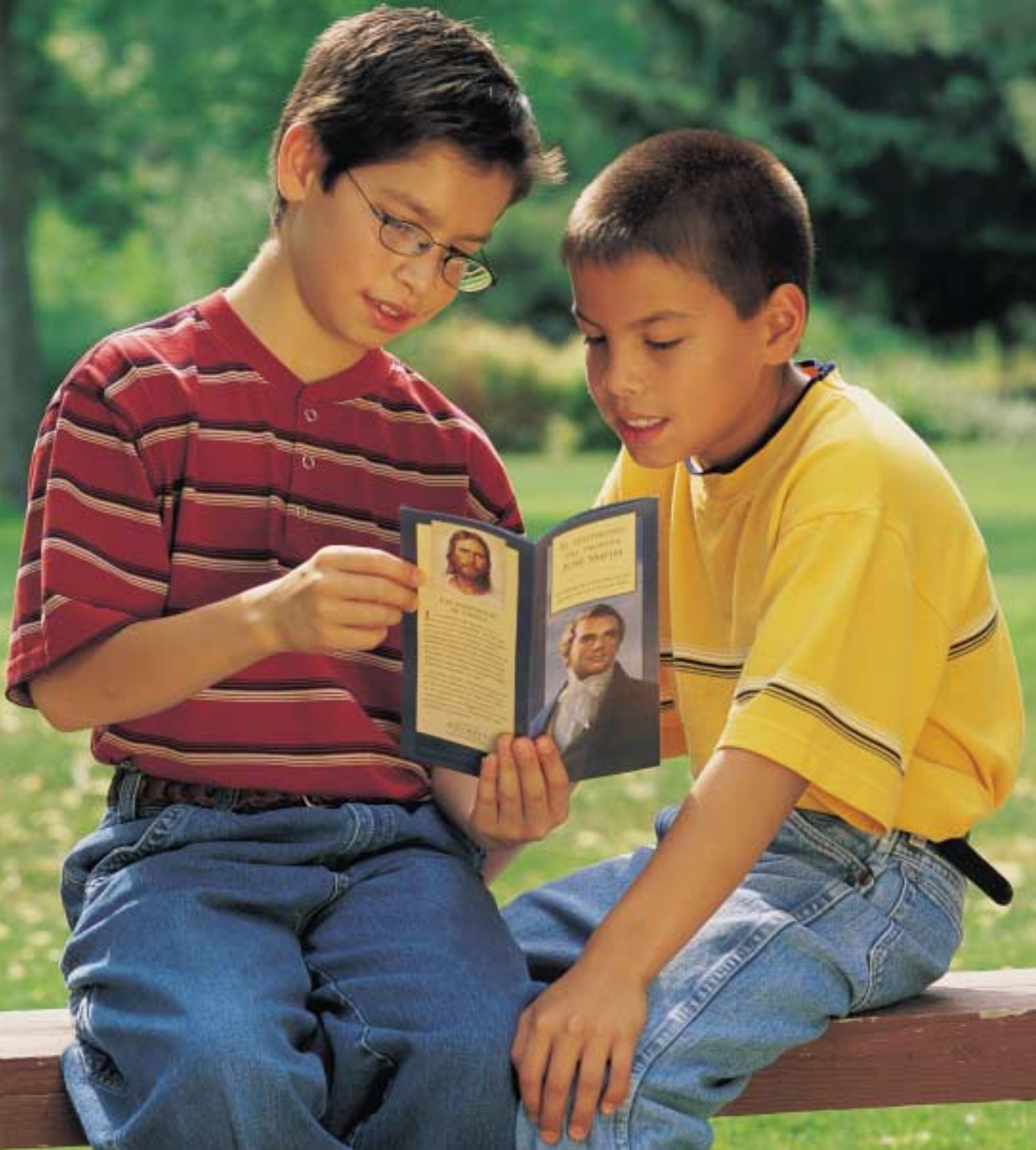
- 친=친구들
- 가르침.....30, 48
- 가정 복음 교육.....7
- 가정의 밤.....48
- 가족 관계.....42, 친6, 친10
- 개종.....34, 42
- 교회 역사.....47, 친4, 친6
- 모범.....18
- 물문경.....34, 47
- 방문 교육.....25
- 봉사.....18, 42, 친10
- 비유.....30, 36
- 사도.....42
- 사랑.....12
- 선교 사업.....18, 30, 친2
- 선택 의지.....33
- 성신.....2, 친10
- 성전 및 성전 사업.....8, 친9
- 성찬.....42, 친11
- 순결.....22
- 순종.....12, 22
- 신앙.....8, 친16
- 신앙개조.....친4
- 신약전서 이야기.....26, 30, 친11, 친14
- 영성.....2, 33
- 예수 그리스도.....6, 30, 친11, 친14, 친16
- 요셉 스미스.....친4, 친6
- 용서.....26, 친6
- 우선 순위.....25
- 우정.....22, 친2
- 준비.....25
- 지도력.....47, 48
- 초등학교.....친4
- 축복.....12
- 화평.....2, 26
- 회개.....12, 26
- 회복.....친2, 친4

여러분의 지식을 시험해 보세요

구세주의 비유에서 함께 나타나는 사람이나 사물을 맞추어 짝지을 수 있는지 본다.

- | | |
|--------|------------------------------|
| 1. 밀 | ㄱ. 병 (마태복음 9:17 참조) |
| 2. 비 | ㄴ. 모래 (마태복음 7:24~27 참조) |
| 3. 포도주 | ㄷ. 가라지 (마태복음 13:24~30 참조) |
| 4. 씨앗 | ㄹ. 나사로 (누가복음 16:19~31 참조) |
| 5. 탕자 | ㅁ. 가시떨기 (마태복음 13:3~8 참조) |
| 6. 부자 | ㅂ. 살진 송아지 (누가복음 15:11~32 참조) |

친구들



우리는 그분을 증거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과소 평가하지 않고 회복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살아 계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교인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복음이 회복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로 논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조용하게, 변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몸소 나타나셨다는 것만 간증하면 됩니다.

우리는 교리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논쟁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온 그 지식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회복된 [구세주의 교회]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존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룬 위대한 선행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같지 않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대하며 친절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회원이 아닌 어느 사람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분은 편지에서 자신의 어린 딸이 말일성도들이 학우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한 말일성도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가 걸고 있던 종교 메달을 낚아챌 예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러한 모든 행동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황금률을 지켜 다른 사람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부름과 첫번째 시현의 실재성과 신권의 회복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다는 것에 관한 간증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

1998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왼쪽: 그림: 아놀드 프리버그, 서반구에 나타난 그리스도; 오른쪽: 그림: 델 파슨, 그리스도와 물문경의 어린이; 모델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우리는 교리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회복된 [구세주의 교회]라는 지식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회복됨

비키 에프 마쭈모리

“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 불리우리라.”(교리와 성약 115:4)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에 대한 어떤 기억이 남을까요? 좋아하던 노래? 특별한 경진 이야기? 복음 표준 가운데 하나?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초등학교 시절에 신앙개조를 물론 당시에 봉사하시던 십이사도의 이름을 모두 외웠다고 합니다. 그는 어른이 되어 그것들을 기억하고자 했을 때, “여전히 십이사도의 이름을 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 신앙개조는 처음 다섯 개를 제외하곤 순서와 온전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리 장로는 다시 신앙개조를 공부했고, 그렇게 하면서 ... “그것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로 주어졌다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신문 편집자인 존 웨트워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언자는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일어났던 많은 것들에 대해 적었습니다. 그는 첫번째 시현과 물몬경을 번역한 일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말일성도의 신앙에 대한 설명이 담긴 신앙개조 13개조를 적었습니다.

페리 장로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세주의 교리를 공부할 때 지도 받을 지침으로서 신앙개조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회복된 주님의 참된 교회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믿는다’란 확신으로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개조”, 1998년 성도의 벗, 5월호, 24쪽)

신앙개조 맞추기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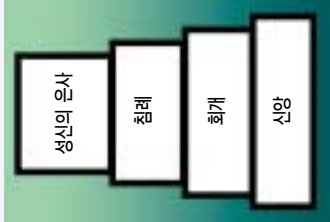




5쪽을 두꺼운 종이에 올려놓는다. 각 카드를 잘라 낸다.

신앙개조를 암기하면서, 일치하는 그림 카드를 찾아낸다. 평평한 바닥에 앞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놓음으로써 맞추기 게임을 한다. 돌아가면서 카드 두 장을 뒤집어 들어맞는지 본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어린이들이 회복의 축복에 대해 배우도록 돕기 위해, 요셉 스미스 2서에 나오는 일부 사건을 검토한다. 네 사람에게 간소한 옷을 입고 와서 요셉 스미스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역할을 연기하게 한다. 그들 각자에게 마치 요셉이 그들에게 직접 그것을 말해 준 것처럼 한 사건에 대해 말하게 한다. 적절한 경우 경전을 사용한다. 어린이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게 돌아가며 각 방문자가 다음의 사건들로 인해 나타난 진리에 관해 증거하는 것을 듣게 한다. 첫번째 시현(요셉 스미스서 2:14~17), 회복의 필요성(요셉 스미스서 2:18~19), 물몬경을 받고 번역함(요셉 스미스서 2:59~60), 신권의 회복(요셉 스미스서 2:68~72), 요셉 스미스, 첫번째 시현, 물몬경, 신권 등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2. 어린이들이 지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신권을 갖는 축복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다 함께 큰소리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게 한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에서 오는 축복과 의무를 토론한다. 용기에 다음과 같은 낱말 조각을 넣어 둔다. 야기를 축복함, 침례, 확인, 성찬 축복, 병 고침의 축복, 부름을 위해 성별함, 건물 헌납, 성전 선교사, 감독, 예언자. 어린이들에게 낱말 스트립을 선택하여 그 위에 적힌 대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 다른 어린이들에게 신권의 어떤 축복이 그려지고 있는지 추측하게 한다. 그 순간이나 그 사람을 통해 신권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토론한다. 각 낱말 스트립을 토론한 후 적합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

<p>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p>	<p>우리는 성령이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한 물론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p>		
<p>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함을 믿는다.</p>	<p>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를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 하실 것을 믿는다.</p>		
<p>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p>	<p>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 대륙 (아메리카)에 시온이 건설되며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지상을 다스리시고 땅은 새로워져서 누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p>		
<p>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p>	<p>우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말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든 예배할 수 있는 특 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p>		
<p>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권능 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할 것을 믿는다.</p>	<p>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정권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p>		
<p>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이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믿는다.</p>	<p>우리는 정치,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찾아 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만 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p>		
<p>우리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계시와 시현을 받는 은사, 병고치는 은사 및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등을 믿는다.</p>			

용서 의 조약 돌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실화에 근거함

그 주일에 리바이는 초등학교에서 집중하지 못했다. 그는 그의 형 제이슨에게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제이슨이 운전 면허증을 딴 지 얼마되지 않았다. 지난 주에 제이슨은 리바이가 자전거를 차고 한 곁에 잘 세워 두었는데도 리바이의 자전거를 깔아 뭉개버렸다. 리바이는 용돈을 모아 자전거를 샀었다. 자전거를 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정말 미안해. 새것처럼 고쳐 놓을게.” 제이슨이 약속했다.

리바이는 쭈굴쭈굴해진 펜더(후반이)를 바라보았다. “다시 똑같아지진 않을거야.”

제이슨이 다시 한 번 사과를 했지만, 리바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형이 그렇게 엉터리로 차를 몰지 않았다면, 내 자전거는 박살나지 않았을 거야.”

“고쳐 준다고 말했잖아.” 더 이상 제이슨의 목소리는 그다지 미안해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리바이는 쿵쿵거리며 그 자리를 떠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오후 내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다. 엄마가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계속해서 말할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

지난 수요일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난 나흘간 리바이는 투덜대며 불평했다. 계속해서 제이슨 형에게 화를 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직은 형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개회 순서와 노래 부르기를 한 후에, 초등학교 회장단의 제2보좌인 맥클루 자매님이 조금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하셨다. 리바이 반을 시작으로 맥클루 자매님은 작은 종이컵을 돌리며, “하나씩 갖고 옆으로 전달하세요”라고 말했다.

리바이는 종이컵에 조약돌이 가득 든 것을 알게 되었다.

“조약돌을 신발 속에 넣고 걸어 보세요.” 하고 맥클루 자매님이 말했다.

리바이는 발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그 작은 돌이 발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다. 리바이는 그 돌을 보다 편한 곳으로 옮겨 놓고자 했다. 하지만, 발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조약돌 느낌이 이상했다.

“자, 이제 경건하게 이 방 둘레를 걸어 보세요.” 하고 맥클루 자매님이 지시하셨다.

몇몇 아이들이 깔깔대었지만 맥클루 자매님이 경건해야 한다고 일러주자 조용히 했다. 조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발을 절게 되자 허리를 숙여 돌을 빼내었다.

리바이는 조약돌을 그냥 그대로 두었다. 걷는 동안 조약돌이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몇 분이 지난 후에, 맥클루 자매님은 아이들에게 자리에 앉아 조약돌을 신발에서 끄집어 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후 맥클루 자매님은 다시 종이컵을 돌리며 어린이들에게 조약돌을 그 안에 집어 넣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맥클루 자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 작은 조약돌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갖게 되는 느낌들과 같습니다. 그 느낌은 처음에는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커져 간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정말로 미안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리바이는 알고 싶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사과하거나 회개하지 않을 때라도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맥클루 자매님이 대답하셨다.

맥클루 자매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자신을 배신한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을 용서했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리바이는 예언자가 심지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했던 폭도들과 공모했던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를 어떻게 용서해 주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리바이는 초등학교 시간 내내 맥클루 자매님의 교훈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 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부모님이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었을 때, 리바이는 가족들에게 조약돌에 대해 말했다.

“그 조약돌을 끄집어 냈을 때 어떤 느낌을 느꼈니?” 아빠가 물었다.

“발바닥이 약간 쓰라렸어요.” 리바이가 시인했다. “맥클루 자매님은 신발에 조약돌을 넣고 걷는 것을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감정을 갖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엄마의 실물 공과랑 똑같네”라고 여동생 애니가 말했다.

모두가 웃었다. 엄마가 가정의 밤에서 공과를 할 때 실물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리바이는 제이슨의 방문을 두드렸다. 제이슨이 문을 열자 그는 “형,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굴었어. 형이 내 자전거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고 말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제이슨은 리바이를 꼭 끌어안고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내일 방과 후에 자전거를 함께 고치지 않을래? 아빠한테 연장을 사용해도 될지 물어 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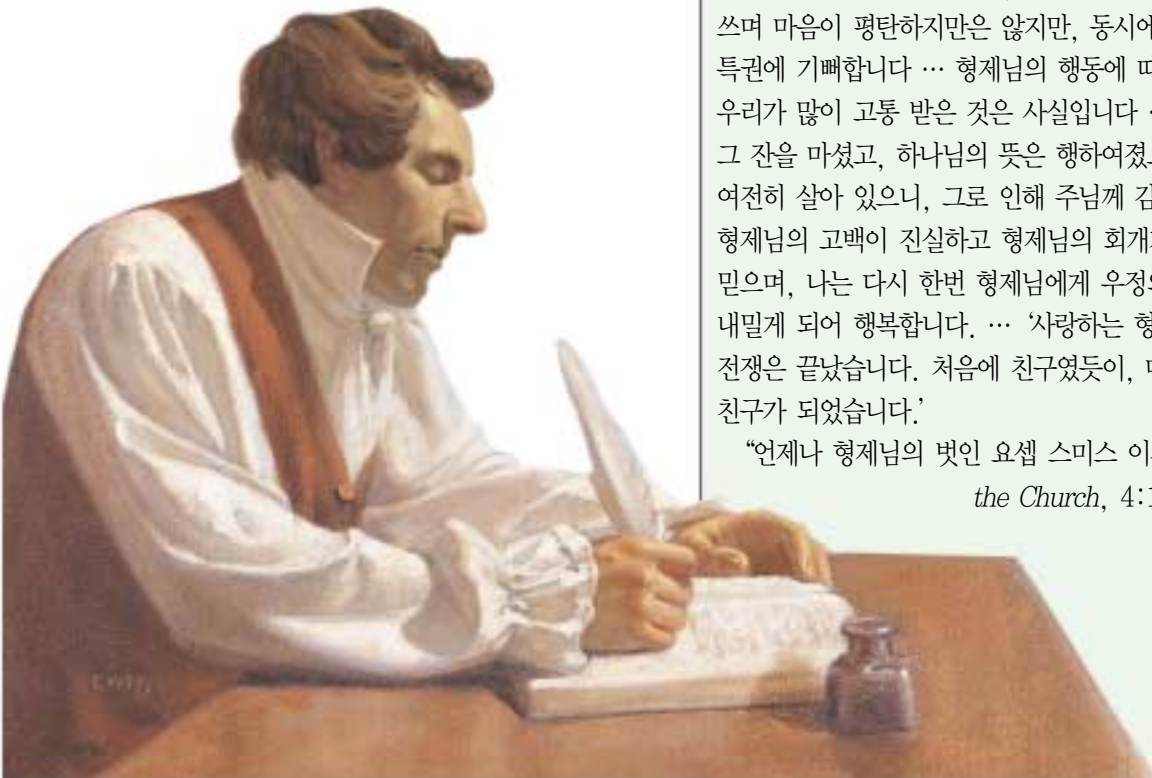
“좋아!” 하고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면서 리바이는 생각했다. “정말 기분이 좋아!” ●

“마침내 다시 친구가 됨”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배신한 후, 펠프스 형제는 요셉의 용서를 구했다. 예언자는 그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사랑하는 펠프스 형제님, 답장으로 이렇게 몇 줄을 쓰며 마음이 평탄하지만은 않지만, 동시에 내게 허락된 이 특권에 기뻐합니다 ... 형제님의 행동에 따른 결과로 우리가 많이 고통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이미 그 잔을 마셨고, 하나님의 뜻은 행하여졌으며,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으니, 그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님의 고백이 진실하고 형제님의 회개가 참되다는 것을 믿으며, 나는 다시 한번 형제님에게 우정의 오른손을 내밀게 되어 행복합니다. ... ‘사랑하는 형제여,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처음에 친구였듯이, 마침내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형제님의 벗인 요셉 스미스 이세”(History of the Church, 4:162~164) ●



성전 카드

2003년에는 친구들 각 호마다 성전 카드가 실릴 것입니다. 잡지에서 성전 카드를 잘라 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이고 오려 내십시오. 성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해 카드를 모으십시오.



사진 촬영: 스티브 트레이크

아이다호 아이다호 폴스 성전

1945년 9월 23일에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에 의해 헌납됨



사진 촬영: 스티브 트레이크

스위스 베른 성전

1955년 9월 11일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에 의해 헌납됨



사진 촬영: 스티브 트레이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

1956년 3월 11일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에 의해 헌납됨



사진 촬영: 마이클 맥프기

뉴질랜드 해밀턴 성전

1958년 4월 20일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에 의해 헌납됨



사진 촬영: 마이클 맥프기

영국 런던 성전

1958년 9월 7일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에 의해 헌납됨



사진 촬영: 론긴 론차나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

1964년 11월 17일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에 의해 헌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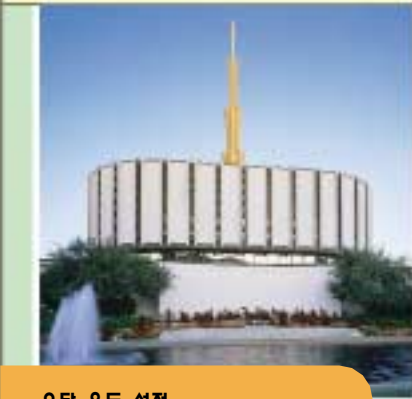


사진 촬영: 존 토포드

유타 옥든 성전

1972년 1월 18일에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에 의해 헌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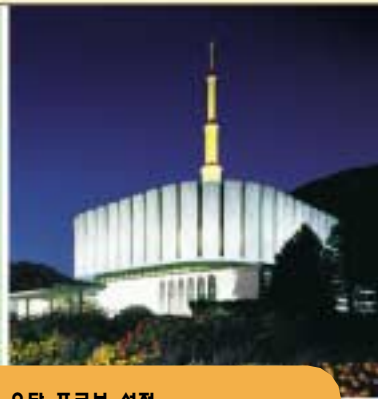


사진 촬영: 스티브 트레이크

유타 프로보 성전

1972년 2월 9일에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에 의해 헌납됨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이 기도문을 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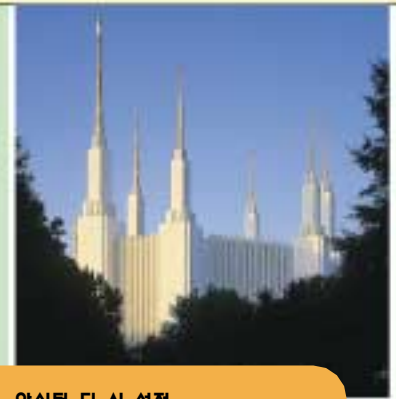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몬드

워싱턴 디 시 성전

1974년 11월 19일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에 의해 헌납됨

엄마를 도움

비니 켄 무라마쥬 드 올리베이라

내가 다섯 살 때, 엄마는 허리가 아파 오랫동안
똑바로 서 있지를 못했다. 점심을 먹고 난 어느 날
오후, 어머니와 두 살 난 동생 대프니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즐겨 하던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 게임에서 가장
신나는 부분을 하던 중에, 엄마를
생각하게 되었다. 엄마는 언제나
집안을 깨끗이 치우셨다.

그런데 지금 엄마는 등이
많이 아팠다. 나는
엄마를 도와 엄마가
깨어났을 때 놀라게
해 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게임을 그만두었다.
부엌으로 가, 의자 위에 서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닦아야

할 접시가 많았지만, 엄마를 대신해서 설거지를 한다면
엄마가 좀더 주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깨를 감싸 안는 손이
느껴졌다. 엄마였다. 엄마는 내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으셨다. 난 엄마의 등이 낡도록 도와 주고 있다고 말하자,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내가 엄마를 돕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엄마는 나를 안아
주시며 내가 한 일로 인해 예수님도 행복해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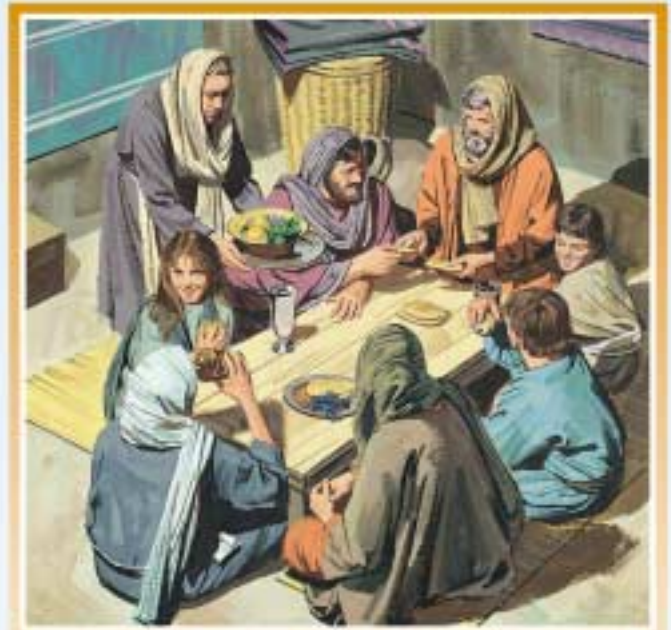
나는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그분처럼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엄마를 도왔기 때문에, 성신이
엄마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가 엄마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신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도왔다. ●

비니 켄 무라마쥬 드 올리베이라(9살)는 일본
오카자키 스테이크 카리아 와드의 회원이다.



수필: 그레그

첫번째 성찬



한복, 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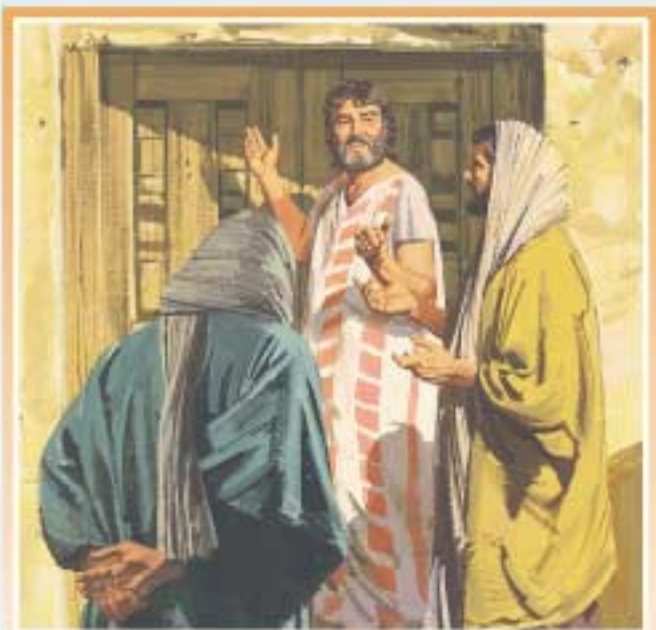
해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 불리는 절기를 보냈습니다. 이 절기는 아주 오래 전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해 내셨는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27; 누가복음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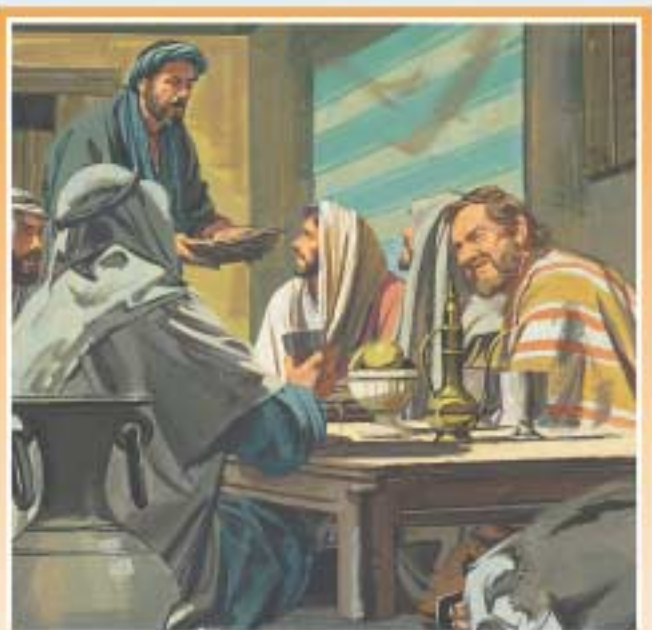
예수님과 십이사도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구세주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렇게 할 방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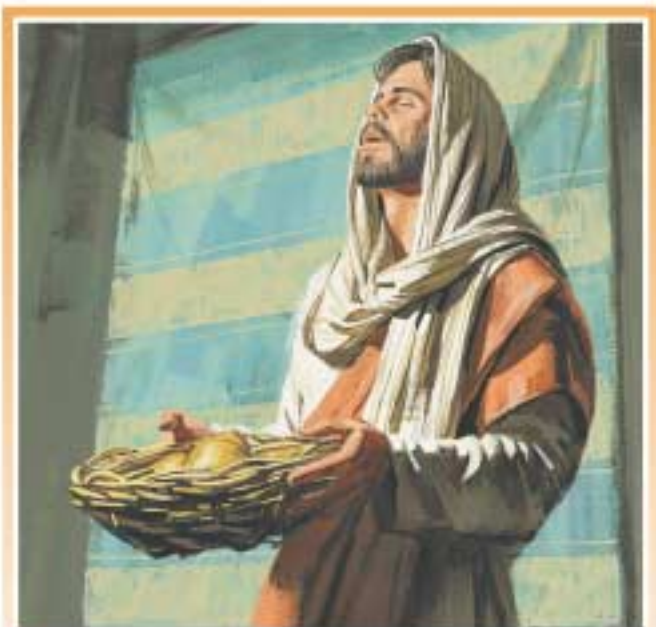
그들은 방을 찾아 음식을 차렸습니다.

누가복음 22:9~13



예수님과 모든 사도들은 그 곳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누가복음 22:14



음식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사도들을 위해 처음으로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손에 떡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여러 조각으로 떼어 내셨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떡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26; 누가복음 2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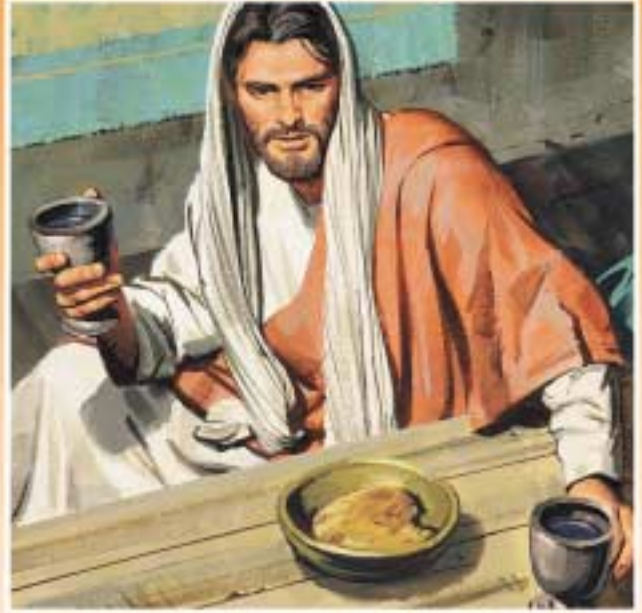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을 위해 돌아가실 것을 기억하기 위해 떡을 먹을 때 그분의 몸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26; 누가복음 22:19



예수님은 잔에다 포도주를 따르시고 포도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들에게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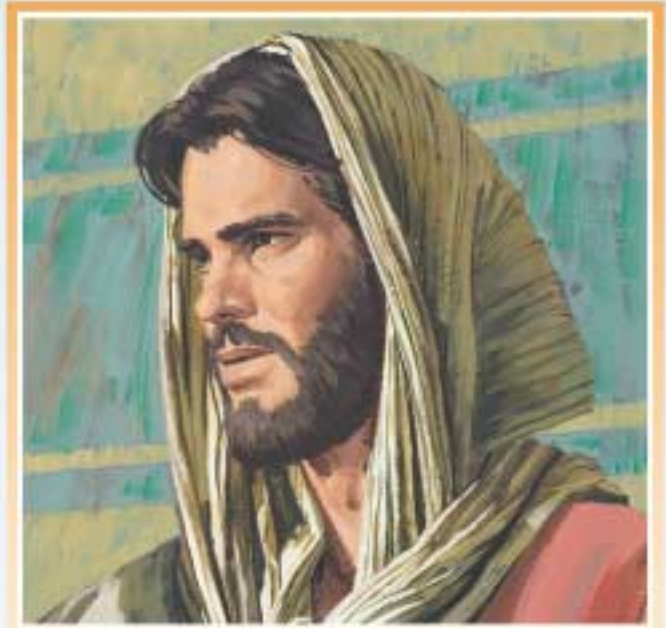


그분은 자신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며 고통 받으실 것을 기억하기 위해 포도주를 마실 때 그분의 피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26; 누가복음 22:20



예수님은 또한 사도들에게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한 사도들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를 사랑했으며 그분이 돌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인 가롯 유다가 악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2, 14~16, 21~25

최후의 만찬에서의 다른 가르침들



다 드신 후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주님의 제자인 줄을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34



그분은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성신을 약속하셨는데, 성신은 그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분은 성신의 도움으로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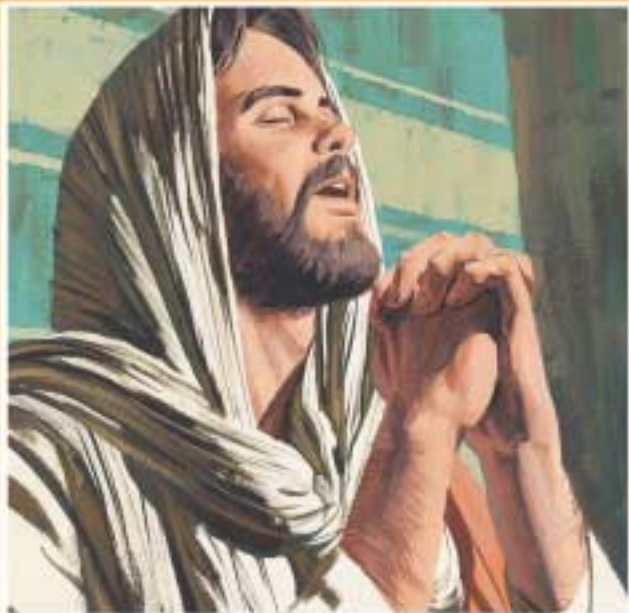
요한복음 14:1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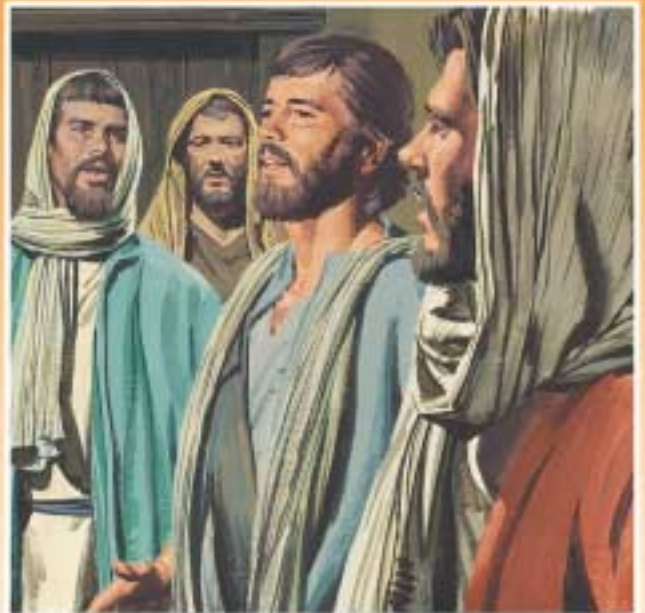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포도나무에서 자라나는 가지들과 같았습니다. 가지들이 훌륭한 과일을 맺지 않는다면, 그러한 가지들은 잘려질 것입니다. 가지가 참된 포도나무에서 잘려 나간다면, 그러한 가지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단단하게 붙어 있다면, 그러한 가지들은 양육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1~2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대로 산다면,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 혹은 그들의 일은 훌륭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생산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3~8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하는 데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행하도록 보내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도록 가르치게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1~4, 6, 20~23



그런 후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그 방을 떠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6:30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

담대하게 ♩ = 92-104

1. 어 려 서 주 님 의 참 된 길 가 - 르 처 축 복 을 주 신 주 바 른
 2. (주) 사 랑 느 끼 게 하 시 고 의 지 하 게 하 시 는 주 님 께 중 성

길 친 구 전 하 여 중 언 하 면 서 살 겠 네 주 내
 다 친 구 주 께 찬 송 을 부 르 며 살 겠 네

도 움 구 하 면 나 에 게 힘 을 주 어 축 복 을 주 신 주 기 -
 모 든 일 축 복 하 시 니 마 음 으 로 감 사 와 찬 송 주 영 광 -

1. 2.
 빠 게 참 신 앙 가 지 고 주 따 라 살 겠 네 주 보 여
 들 리 며 은 혜 에 보 답 하 면 서 살 겠 네 보 여

주 신 길 신 앙 가 지 고 주 따 라 살 겠 네

작사 및 작곡 : Janice Kapp Perry, 1938년생
 판권 소유 © 2001, Janice Kapp Perry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그림: 딜린 마쉬